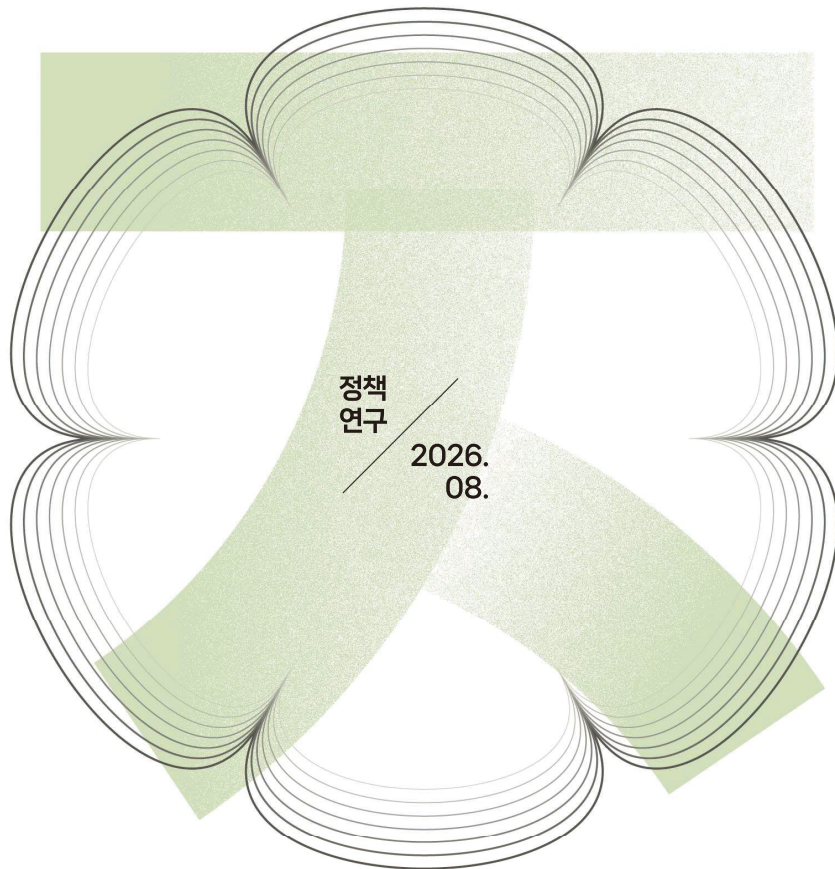


● ● ● 정책연구 202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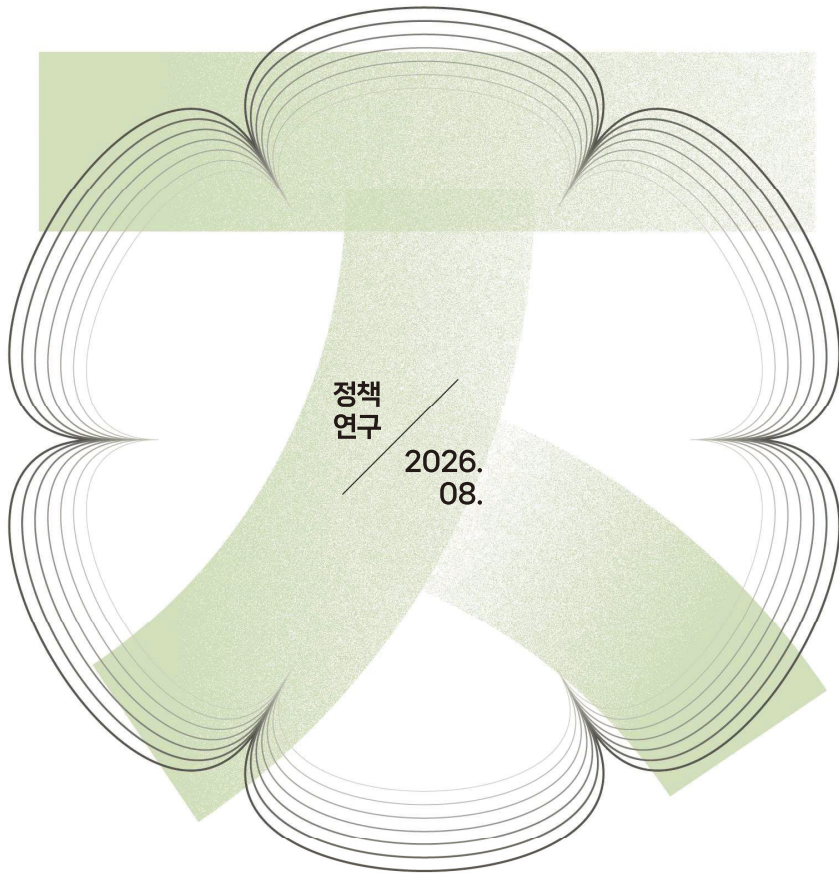
「책 읽는 도시 김해」 독서문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최나라·강지윤



「책 읽는 도시 김해」 독서문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최나라·강지윤



연구진 profile

최나리	• 연구책임 • 연구기획실장
강지윤	• 공동연구 • 연구기획팀장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김해시는 2007년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선포한 이후 다양한 독서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독서진흥을 넘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와 지역공동체 형성, 도시브랜드 제고를 아우르는 김해시 대표 문화정책으로 발전해 왔음
- 최근 독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시설·행사 중심 정책에서 시민의 생활권과 일상을 중심으로 접근성, 참여성, 포용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됨
- 특히 2027년은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20주년이 되는 시점으로, 지난 20년간 축적된 정책 성과를 계승하면서 변화된 시민 수요와 독서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체계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전역으로 설정하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및 독서문화공간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시간적 범위는 「책 읽는 도시 김해」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6년까지의 추진경과를 분석하고, 중장기 실행계획은 2027~2031년을 중심으로 설정함
- 주요 연구내용은 독서문화 정책환경 및 상위계획 분석, 「책 읽는 도시 김해」 추진성과와 인프라 진단, 시민 독서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종합진단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함
-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통계자료 분석, 사례비교, 설문조사 분석,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는 혼합형 연구방법을 적용함

| 요약 및 정책함의 |

□ 전략체계



□ 정책적 제언

- 2027년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20주년을 정책 전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 도서관·독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함
- 중장기 전략과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연계해야 함
- 작은도서관 정책을 양적 확충에서 운영 내실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통합 정보·알림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시민 독서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정책 환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국비 확보와 지역 독서생태계의 외부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II	독서문화 정책환경과 여건 변화	7
1.	독서문화 정책의 개념과 범위	7
2.	독서환경 및 사회환경 변화분석	10
3.	중앙정부 및 상위계획 동향	16
4.	정책환경 및 종합 시사점	20
5.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2
III	「책 읽는 도시 김해」 추진현황 및 성과	31
1.	「책 읽는 도시 김해」 추진경과와 추진체계	31
2.	독서문화 인프라 현황	36
3.	주요 사업 운영 현황	42
4.	부문별 성과와 한계	49
IV	독서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52
1.	시민 독서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52
2.	도서관 및 독서문화 정책 우선순위 분석	67
3.	조사분석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74
V	「책 읽는 도시 김해」 중장기 발전전략	76
1.	전략체계 구성 및 전략수립 기본방향	76
2.	비전과 목표	79
3.	전략 1: 생활권 독서 인프라·접근성 강화	80
4.	전략 2: 도서관 서비스·공간 혁신	86
5.	전략 3: 시민 독서문화 확산·참여 기반 강화	93
6.	전략 4: 추진체계·지속가능성 강화	100
VI	결론	107
1.	정책적 제언	107
2.	향후 과제	110
	참고문헌	111
	부 록(설문조사표)	113

I 서론

1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김해시는 2007년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독서정책인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선포하고, 시민 독서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독서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특히 2007년 협약 당시 「책 읽는 도시 김해」 종합계획 마련,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 정보격차 해소,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학교도서관 지원,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 작은도서관 사업 등이 주요 시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이후 김해시 독서문화정책의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해 왔음
- 「책 읽는 도시 김해」는 단순한 독서 장려사업을 넘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평생학습 기반 확대,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도시브랜드 제고를 포괄하는 김해시의 대표 문화정책으로 발전해 왔음
- 대표적으로 김해시 올해의 책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김해 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작은도서관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등과 함께 김해시의 대표적인 독서문화 정책자산을 형성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 역시 김해시 올해의 책 독서릴레이와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김해시가 추진하는 독서문화사업의 주요 참여·협력 주체로 기능해 왔으며,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도 확대되면서 지역 단위 독서문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독서문화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종이책 중심의 전통적 독서에서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독서매체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와 숏폼 콘텐츠의 확산 등으로 시민의 정보이용 및 여가 방식도 변화하고 있음
- 독서문화정책 역시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과 독서행사 중심에서 시민의 생활방식과 매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인구 확대, 생활권별 인프라 및 접근성 차이 등 사회구조의 변화도 독서문화정책의 대상과 방식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이에 독서정책은 기존 도서관 이용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청년·직장인, 중장년, 고령층,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시민과 비독자·도서관 비이용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최근 김해시 독서 문화사업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김해독서대전은 기존 평생학습과학축제와의 통합방식에서 벗어나 책과 독서에 집중한 독립축제로 전환하고, 도서관뿐 아니라 지역서점·출판사·독서공동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음
 - 2025년 김해시 올해의 책 역시 대표·청소년·어린이·시민작가도서의 4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주체별 연계를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향후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책이 시설 확충과 개별 행사 운영 중심의 단계를 넘어, 시민의 일상적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주체를 연결하는 생활권 기반의 독서문화 생태계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2) 연구 필요성

- 김해시는 지난 약 20년 동안 시립 공공도서관 확충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대표 독서문화사업 육성, 지역서점 지원 등 독서문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향후에는 기존 시설과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생활권별 접근성, 서비스의 질, 시민 참여, 정책 간 연계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책 읽는 도시 김해」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유지·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축적된 정책자산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의 독서행태 및 정책수요 변화에 기초하여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문화·복지시설 및 시민 독서공동체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서문화 자원을 생활권 단위에서 연계함으로써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독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실행 주체와 협력 주체의 역할을 구분한 전략 수립도 필요함
 - 학교도서관과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김해시 독서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김해시 독서문화사업의 주요 협력주체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의 직접적인 운영·관리 대상과는 차이가 있음
 - 이들 시설은 지역 독서문화 인프라 및 생활권 서비스 접근성 파악과 협력 체계 검토에는 포함하되, 운영·조직·인력·예산 개선과 같은 세부 정책과제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전략 범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김해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및 주요 독서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학교·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등은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협력주체 및 생활권 인프라로서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특히 2027년은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20주년이 되는 시점으로, 지난 정책성과를 정리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정책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 독서문화 정책환경 변화, 지역 독서문화 인프라와 생활권별 서비스 여건, 시민 독서실태 및 정책수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김해시 독서 문화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책 읽는 도시 김해」의 핵심가치와 비전, 목표를 재정립하고,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도서관 서비스·공간 혁신, 시민 독서문화 확산·참여기반 강화,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중장기 정책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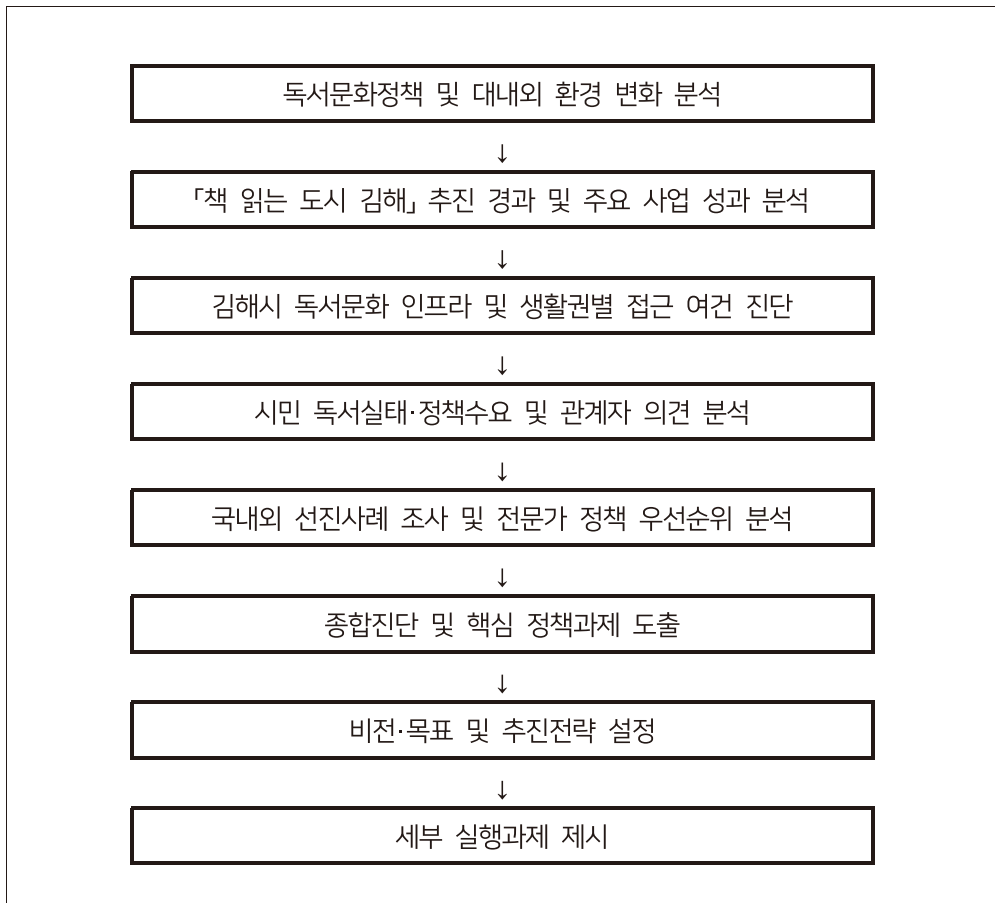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전역으로 설정함. 다만 연구대상은 김해시가 직접 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사업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운영주체가 다른 시설은 현황 및 협력체계 분석 범위로 구분함
-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김해시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등과 김해시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김해시가 직접 추진 및 지원하는 독서 문화사업으로 설정함
-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은 본 연구의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범위에서 다룸
- 생활권 분석은 김해시의 행정구역과 실제 도서관 서비스권을 고려하여 북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독서문화 인프라의 분포, 시민의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접근여건을 분석함
 - 북부권: 진영읍·한림면·생림면·북부동
 - 서부권: 주촌면·진례면·장유1·2·3동
 - 중부권: 동상동·회현동·부원동·내외동·칠산서부동
 - 동부권: 활천동·삼안동·불암동·상동면·대동면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로 설정함. 2007년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이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경과 및 성과를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의 실행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함
- 특히 2027년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20주년을 기존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정책체계로 전환하는 기준시점으로 설정하고,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실행 가능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독서 문화정책 및 책 읽는 도시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독서문화·도서관 정책, 사회·기술환경 변화, 시민의 독서행태 변화 등 대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함

- 2007년 이후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정책 추진경과와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김해시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작은도서관 지원, 지역서점 연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함
- 시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문화 인프라의 규모, 운영 현황 및 생활권별 분포를 분석함
-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독서행태, 도서관 이용 특성, 독서 저해요인, 정책인지도 및 향후 정책수요와 생활권·연령·계층별 차이를 도출함
- 국내외 독서문화정책과 도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생활 속 독서확산, 독서취약계층 지원, 지역서점 연계,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등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요소를 검토함
- 전문가 우선순위 조사를 통해 정책영역과 세부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시민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 정책환경 분석, 추진현황 및 인프라 진단, 시민조사, 국내외 사례 및 전문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책 읽는 도시 김해」의 핵심가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함
- 전략별 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주체와 협력주체, 단계별 추진방안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책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헌·정책자료 분석, 행정·통계자료 및 사업실적 분석, 시민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전문가 우선순위 조사,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함
-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행정·통계자료 및 사업실적 분석
 - 시민 독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비교분석
 - 전문가 우선순위 조사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종합분석 및 전략 도출
- 연구 절차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II 독서문화 정책환경과 여건 변화

1 | 독서문화 정책의 개념과 범위

1) 독서문화의 개념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는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독서문화는 개인이 책을 읽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읽고 쓰고 토론하며 공유하는 활동 전반과 그 결과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임¹⁾
- 독서는 개인 차원에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기르는 기초 활동이며, 사회 차원에서는 토론문화와 공동체적 소통의 기반이 됨
- 도시 차원에서 독서문화는 도서관서점 등 물리적 기반(시설), 독서 프로그램과 행사(콘텐츠), 독서동아리와 시민(사람), 조례·계획·예산(제도)이 상호 결합된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2)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개념

- 독서문화진흥 정책은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 정책을 의미함. 동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정책의 대상은 책을 읽는 시민에 한정되지 않으며, 독서에서 떨어진 비독자, 장애·고령·경제적 제약 등으로 독서에서 소외되기 쉬운 독서 소외인까지 포괄함
- 독서문화진흥 정책은 시민 개개인의 독서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책을 매개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21447호.

- 따라서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핵심은 독서활동의 장려, 독서환경의 조성, 그리고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구축 세 가지에 있음

3)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범위

-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범위는 「독서문화진흥법」상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법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독서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독서소외인·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독서활동의 권장·보호·육성, 독서자료의 생산·유통 진흥, 조사연구 등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정책은 크게 독서 기반 조성, 독서자료 및 콘텐츠 확충, 독서교육 및 독서역량 강화, 독서복지 및 독서격차 해소, 독서공동체 및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 정책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의 일곱 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범위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행사 개최에 한정되지 않으며, 독서 인프라·자료·프로그램·교육·복지·공동체·지역서점·출판과 창작, 행정체계와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표 2-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범위

정책 영역	주요 내용
독서 기반 조성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학교도서관·지역서점 등 물리적·제도적 독서 환경 확충, 장서 확충, 통합도서관 서비스, 디지털 독서환경 구축
독서자료·콘텐츠 확충	도서·전자책·오디오북·시청각자료·특수자료(점자 등)·지역자료·다문화 자료의 확보와 제공
독서교육·독서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독서습관 형성, 읽기·쓰기·토론 역량 지원,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독서복지·독서격차 해소	독서소외인 지원, 점자·큰글자도서·오디오북 보급,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취약지역 접근성 개선
독서공동체·시민참여 활성화	독서동아리·독서토론, 한 도시 한 책 읽기, 시민작가 발굴, 북페스티벌 등 참여·생산자형 활동 지원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	지역서점·출판·창작·학교·문화단체·독서공동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거버넌스	전담조직·전문인력, 조례·계획 등 제도 정비, 민관협력, 성과관리

자료) 「독서문화진흥법」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4)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 정책의 관계

-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 정책은 별개의 정책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독서활동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연계되는 정책 체계임
- 도서관 정책이 독서와 지식정보 이용을 지원하는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조성·운영하는 정책이라면, 독서문화 정책은 그 기반 위에서 시민이 읽고 쓰고 토론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임
- 법·제도적으로도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음.
「도서관법」 제32조는 공공도서관의 업무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함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실시, 도서관 간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음²⁾
- 이는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대출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독서활동·문화활동·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시설임을 의미하며, 도서관 정책의 성과가 곧 독서문화 정책의 성과로 연결되는 구조임을 보여줌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2 | 독서환경 및 사회환경 변화 분석

1) 국민 독서율 하락과 독서문화 위기

- 최근 우리나라 독서문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여건 변화는 성인 독서율의 지속적 하락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종합독서율은 성인 38.5%, 학생 94.6%로 나타났다³⁾
 - 2023년 조사와 비교해 성인은 4.5%p, 학생은 2.2%p 감소한 수치로, 특히 성인 독서율은 40% 아래로 내려가면서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독서문화 정책의 위기성을 보여주고 있음
- 독서량과 독서시간도 함께 감소하고 있음. 2025년 조사에서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량은 2.4권으로 2023년 조사보다 1.5권 감소하였고, 학생의 연간 종합독서량은 31.5권으로 4.5권 감소하였음. 평일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성인 18.2분, 학생 70.3분 수준임

<표 2-2> 국민 종합독서율 추이(2019~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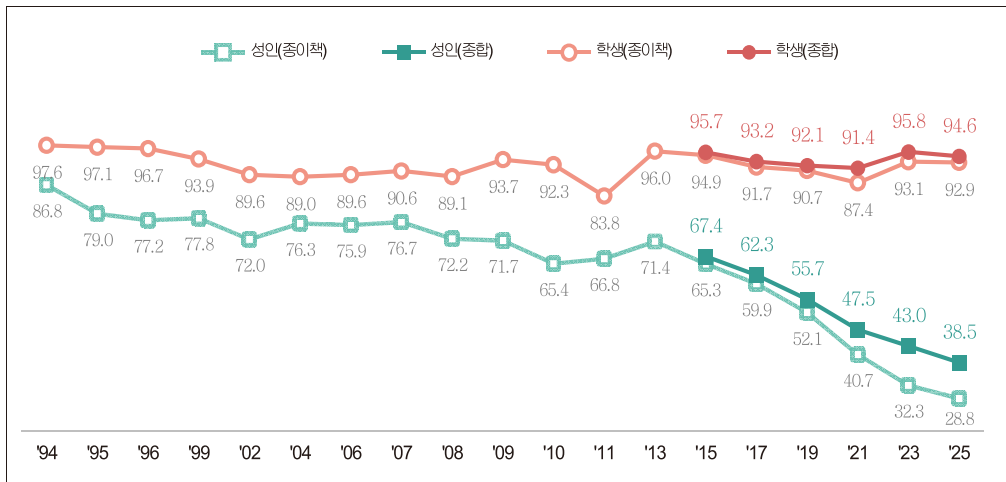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성인(%)	55.7	47.5	43.0	38.5
학생(%)	92.1	91.4	96.8	9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넘어, 시민의 지식정보 습득 방식, 여가 활용 방식, 문화참여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독서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문해력,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역량, 사회적 토론문화 약화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문화진흥 정책은 단순한 독서 권장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 역량 강화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독서 장애요인으로서는 성인과 학생 모두 ‘시간 부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인의 24.3%는 책 대신 다른 매체·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3)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이는 독서율 하락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학업부담, 여가 매체 변화 등 생활환경 변화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다만 모든 계층에서 독서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은 아님. 20대의 종합독서율은 75.3%로 2023년보다 오히려 0.8%p 상승하였으며, 도서관 방문, 야외 독서, 필사, 교환 독서 등 새로운 독서문화 유행이 젊은 층의 독서 관심과 연결되고 있음
- 독서율 변화는 독서문화 정책의 위기이자 동시에 전환의 계기이며,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는 접근과 세대별 독서 동기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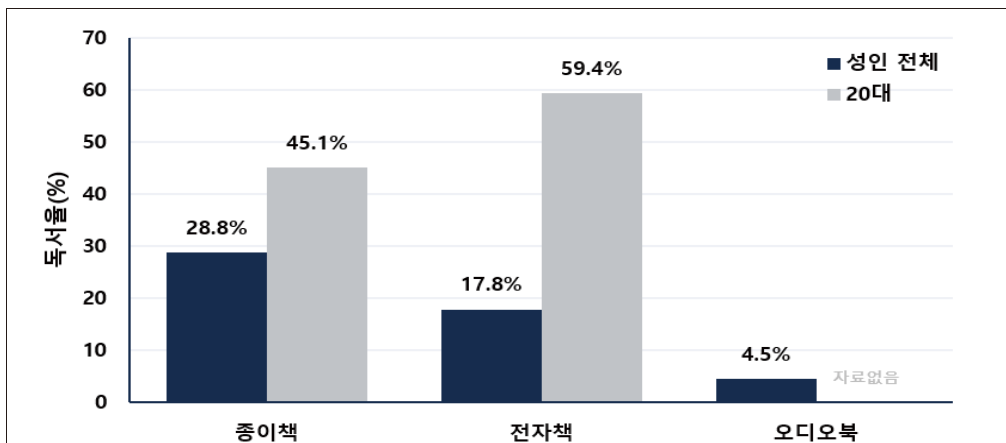
(그림 2-1) 독서율 추이

2) 디지털 매체 확산과 읽기 방식의 변화

- 독서환경 변화의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디지털 매체의 일상화임
 -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99.97%, 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94.5%로 나타남
 -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정보·콘텐츠 소비가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⁴⁾
- 디지털 환경의 확산에 따라 읽기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종이책 중심의 전통적 독서에서 전자책, 오디오북, 웹 기반 텍스트, 모바일·구독형 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
-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매체별 독서율은 종이책 28.8%, 전자책 17.8%, 오디오북 4.5%로 나타남. 특히 20대에서는 전자책 독서율은 59.4%로 종이책 독서율 45.1%보다 높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독서가 주요한 읽기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⁵⁾
- 한편 동영상과 숏폼 콘텐츠 중심의 여가·정보 소비가 확대되면서 짧고 빠른 콘텐츠 소비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긴 호흡의 독서와 깊이 있는 읽기 경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문해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향후 독서정책은 단순한 종이책 읽기 장려를 넘어 다양한 읽기 방식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읽기 역량도 독서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야 함
- 김해시도 전자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온라인 독서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매체를 기존 독서와 경쟁하는 수단으로 보기보다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요구됨. 종이책과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하여 시민의 독서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그림 2-2) 성인 매체별 독서율: 전체와 20대 비교(2025)

5)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3) 생애주기별·계층별 독서격차 확대

- 독서율 하락은 단순한 평균의 문제라기보다 계층 간 격차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학생과 20대의 독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중장년층과 고령층으로 갈수록 독서율이 낮아지는 연령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소득과 학력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독서격차도 확인되고 있음. 농촌·외곽지역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독서소외계층은 독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독서환경도 취약한 편임
-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독서정책도 다름. 영유아기에는 독서습관 형성, 학령기에는 독서교육, 청년·직장인 시기에는 독서 지속이 중요함. 중장년·노년기에는 독서 재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취업과 육아 시기에 독서가 단절되는 경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이러한 격차는 일률적인 독서 캠페인보다 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본 연구의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연령대, 권역, 자녀 유무에 따라 독서율과 도서관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남. 따라서 김해시 차원의 독서격차 대응 전략이 요구됨

4) 지역사회 기반 독서문화의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도서관과 독서문화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도서관은 교육, 문화, 돌봄, 공동체 활동이 결합되는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함. 지역의 삶의 질과 문화적 정주여건을 높이는 생활 기반시설로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독서문화 활동도 개인 독서에서 함께 읽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독서 동아리, 한 도시 한 책 읽기, 북페스티벌 등 공동체 기반 독서활동이 대표적임. 이러한 활동은 독서의 지속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 형성에도 기여함
- 2007년 김해시의 「책 읽는 도시」 선포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독서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결성 등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도 확대되었음. 독서문화 정책은 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교육발전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책 읽는 도시 김해」가 선도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단순한 유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지역 독서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중장기 전략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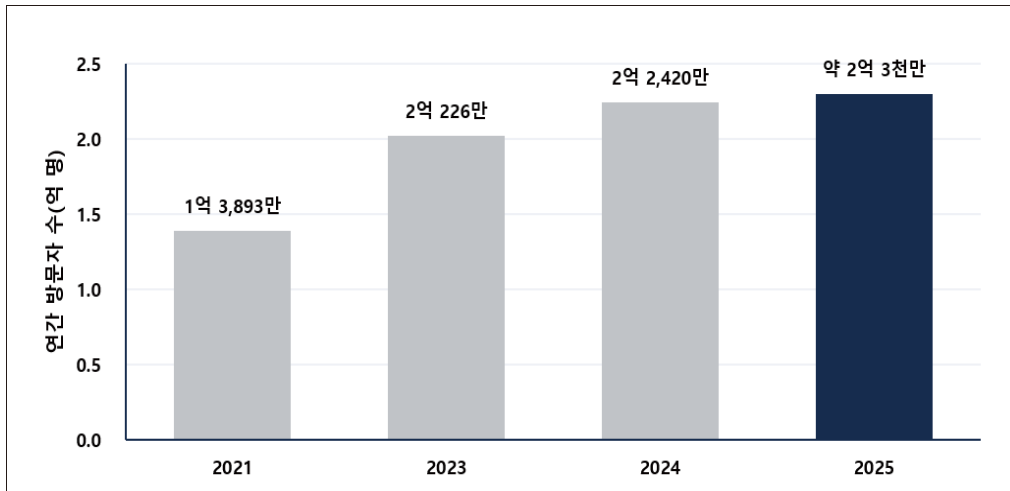
5) 공공도서관의 기능 변화와 정책적 역할 확대

- 공공도서관은 자료 대출·열람 중심의 공간을 넘어 생활문화 기반시설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독서, 교육, 문화, 돌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⁶⁾
- 2025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은 1,328개관으로 전년보다 32개관, 2.5% 증가함.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수는 38,492명으로 감소함. 이는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공급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⁷⁾
 - 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2025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약 2억 3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함. 국민 1인당 연간 방문 횟수는 4.51회 수준임
 - 전국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2021년 약 1억 3,893만 명에서 2023년 약 2억 226만 명, 2024년 약 2억 2,420만 명으로 증가함. 코로나19 이후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일상적인 문화·교육·교류 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 프로그램 기능도 확대되고 있음. 2025년 기준 공공도서관 1관당 연간 평균 92건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됨.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전년 대비 6.8% 증가함. 공공도서관이 강연, 전시, 체험,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함.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전문인력, 장서, 프로그램, 공간구성, 디지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작은도서관과의 역할 분담과 학교·서점·문화시설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⁸⁾
- 김해시 역시 공공도서관을 독서문화 정책의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독서단체 등과 연계하는 통합형 독서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6)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7)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8)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국가도서관위원회(2026),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그림 2-3) 전국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수 추이

3 | 중앙정부 및 상위계획 동향

1)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제도

- 「독서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또한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여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임. 전부개정된 법률이 2022년 시행되면서 도서관 정책 추진체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됨. 도서관 등록제, 지역대표도서관, 사서 및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됨
-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과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문화산업 육성과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도서정가제도 이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지역서점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서점 우선구매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김해시는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통해 지역 독서문화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 독서소외인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등의 근거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 실태 조사·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 정책 동향⁹⁾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함. 비전은 ‘독서 저변 확대’이며, 목표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적 기반 조성’임.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성인 연간 독서량 7.5권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9) 문화체육관광부(2024),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 기본계획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됨. 주요 전략은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 습관 형성 지원, 독서 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임. 이를 바탕으로 12개 주요과제와 39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특히 비독자를 독서하지 않는 원인에 따라 유형화한 점이 특징임. 일·육아 등으로 독서가 단절된 ‘상황형’, 독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의지형’, 난독·집중력 등 어려움이 있는 ‘환경형’으로 구분함.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독자 전환 전략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역 독서정책의 대상 확대 필요성을 보여줌. 기존의 ‘책 읽는 시민’ 중심에서 벗어나 ‘책을 읽지 않는 시민’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김해시도 비독자의 특성과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독서동아리, 북스타트 등 지역과 연계한 독서진흥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표 2-3>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개요

구분	내용
수립 근거·주체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비전·목표	독서 저변 확대 /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적 기반 조성
4대 전략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 습관 형성 지원 독서 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목표치	2028년 성인 독서율 50.0%, 성인 연간 독서량 7.5권
특징	비독자를 상황형·의지형·환경형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전환 전략 제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4),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3) 국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정책 동향¹⁰⁾

-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4년 5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심의·확정함

10)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임
- 인공지능 확산, 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정책 역량 강화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방향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혁신, 모든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서비스 확대, 지역공동체 거점 기능 강화임. 이와 함께 인력, 제도, 통계 등 도서관 운영 기반의 고도화도 강조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 정책은 시설 확충과 함께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임. 생활SOC와 연계한 복합화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사서 인력의 적정 배치와 전문성 강화가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강조되고 있음

<표 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개요

구분	내용
수립 근거·주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5. 29. 심의·확정)
정책 방향	지식정보 서비스 혁신, 모든 세대·계층 포용 서비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동체 거점화, 운영 기반(인력·제도·통계) 고도화
시행 구조	중앙행정기관·17개 시·도가 매년 시행계획 수립(2025년 기준 중앙 87개·지자체 246개 과제)
지역 합의	생활권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스마트도서관·상호대차 확대, 전문인력 확보

자료)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4) 지역서점·작은도서관·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동향

- 작은도서관은 생활권 단위의 독서 접근성을 보완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근거로 설치·운영이 지원되고 있으나, 운영 주체의 역량 편차와 자원봉사 의존 등 한계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실태조사와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연계도 확대되고 있음. 순회사서 지원, 상호 대차, 공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역량을 보완하는 방식임.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기존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지역서점 정책도 판매 지원에서 문화적 기능 강화로 확대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지역서점 우선구매와 함께 서점을 독서·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희망도서 바로대출 등 도서관과 지역서점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음
-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기반으로 사서교사 배치와 독서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독서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참고 수준에서 검토함

4 | 정책환경 및 종합 시사점

1) 정책환경 변화의 핵심 시사점

- 독서율 하락과 비독자 증가는 독서를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기 어려운 정책환경을 보여줌.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적인 독서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중앙정부의 독서정책은 단순한 독서 권장에서 비독자의 독자 전환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생활권 접근성, 독서소외계층 지원, 디지털 독서 환경 대응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강조되고 있음
- 디지털 매체 확산으로 시민의 읽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음.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독서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연령, 계층, 생활권에 따른 독서 및 도서관 이용 격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남. 동일한 사업을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기보다 생애주기와 이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
-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자료 대출 중심에서 생활문화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 확충보다 서비스 품질, 전문인력, 장서, 프로그램, 디지털 서비스 등 운영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음

2) 김해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

-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중장기 전략은 개별 사업의 확대보다 지역 독서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독서공동체 등을 연결하는 구조가 요구됨
- 생활권별 독서 접근성의 차이를 완화하는 전략도 중요함. 공공도서관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순회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비독자와 잠재독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기존 도서관 이용자와 독서 참여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독서하지 않는 이유와 생활방식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세대별 읽기 방식의 차이에도 대응해야 함. 청년층에는 디지털 콘텐츠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에는 독서 재진입과 접근성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 정책은 양적 확충보다 운영 내실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운영평가와 지원체계를 연계하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생활권 독서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높여야 함
- 지역서점도 단순한 도서 판매처가 아니라 지역 독서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확대하고 북페이백, 작가와 서점 나들이 등 기존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상위정책과 김해시 정책의 연계 방향

- 중앙정부 정책과 김해시의 정책수요는 상당 부분 일치함. 생활권 접근성 강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비독자 지원, 디지털 독서환경 대응, 전문인력 강화 등이 공통적인 정책과제로 확인됨
- 김해시는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정책을 수립할 때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과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가 공모사업과 지원사업도 중장기 전략의 세부과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전략을 중앙정부 계획의 단순한 지역 이행계획으로 설정해서는 안 됨. 2007년 이후 축적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김해의 정책자산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전략을 마련해야 함
- 향후 중장기 전략은 국가정책과의 정합성과 김해 고유의 정책 정체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화한 독서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전환해야 함

5 |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 전주시

- 전주시는 독서축제,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출판문화,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독서문화관광형 도시로 평가할 수 있음. 2017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계기로 자체적인 전주독서대전을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전주의 완판본 출판문화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독서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도시 차원의 독서문화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음
- 시민이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쓰기, 토론, 출판, 만들기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전주시 독서정책에서 가장 차별적인 사업은 특색 있는 도서관과 복합문화 공간을 여행코스로 연결한 ‘전주 도서관 여행’임
 - 전주 도서관 여행은 단순한 도서관 시설 견학이 아니라 도서관별 건축적 특징과 공간의 역사, 지역 이야기를 전문 해설과 함께 경험하고, 책 읽기와 문화예술 체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개별 도서관을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전환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있음
- 전주시 사례는 도서관을 책을 대출하고 열람하는 정적인 시설에서 벗어나,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를 경험하고 머무는 문화관광공간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독서정책을 도서관 내부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축제, 출판, 관광, 지역상권과 연계함으로써 독서문화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음
- 김해시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과 대성동고분군, 봉황동 유적, 수로왕릉 등을 연결한 ‘책 읽는 도시 김해 여행’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별 특성화 콘텐츠와 김해의 역사·생태·인물 이야기를 해설, 낭독, 북 큐레이션, 체험 프로그램 연계 필요
 - 김해독서대전을 도시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함께 경험하는 독서문화관광 플랫폼으로 발전



자료) 전주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jeonju.go.kr>)

(그림 2-4) 전주 도서관 여행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기존 도서관 건물 중심의 독서정책에서 벗어나 광장, 하천, 공원 등 시민의 일상적인 도시공간을 독서공간으로 전환하는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¹¹⁾
 -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넷가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대출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과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서울야외도서관은 모든 공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장소의 특성과 주요 이용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 콘셉트를 적용하고 있음
 - 책읽는 서울광장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머무는 ‘도시의 거실’, 광화문 책마당은 독서와 문화·휴식을 결합한 ‘도심 속 휴양지’, 책읽는 맑은넷가는 물소리와 함께 독서를 즐기는 ‘책명·물명’ 공간으로 설정하여 장소별 정체성과 이용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서울 사례의 핵심은 시민에게 도서관 방문을 요구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이 이미 머물고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 책과 독서서비스를 가져간 데 있음. 독서를 독립적인 문화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휴식, 공연, 전시, 여가, 가족활동과 결합함으로써 평소 독서에 관심이 적은 시민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음
- 김해시도 연지공원은 가족 중심의 생활형 야외도서관, 해반천은 야간 수변형 독서공간, 대성동고분군은 역사문화 북피크닉, 장유권역 공원은 청년·가족 중심의 야외도서관으로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

11) 서울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seoul.go.kr>)

- 다만 책장과 빈백을 단순히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별 주제에 맞는 북큐레이션, 지역서점 팝업, 음악·낭독·전시, 어린이 체험, 계절별·시간대별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여 장소성과 독서 경험이 결합된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함



자료) 서울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seoul.go.kr>)

(그림 2-5) 서울야외도서관

<표 2-5> 국내 독서문화정책 사례 유형별 비교

구분	전주시	서울특별시
대표 사업	전주독서대전, 전주 도서관 여행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넷가
주요 공간	특색도서관, 복합문화공간,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관광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도심 공공공간
운영 방식	전문해설, 도서관 탐방, 지역 이야기, 독서·문화예술 체험을 코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대출절차 없이 시민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공연·전시를 경험하도록 운영
정책적 특징	도서관을 도시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시민이 머무는 장소로 책과 독서서비스를 직접 제공
김해시 적용 방향	도서관·지역서점과 대성동고분군·봉황동 유적·수로왕릉을 연계한 '책 읽는 도시 김해 여행' 개발	연지공원·해반천·대성동고분군·장유권역 공원별 특화 야외도서관 운영
김해시 적용 시 중점사항	도서관별 특성화와 역사·생태·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강화	장소별 이용계층, 시간대, 계절을 고려한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

2) 해외 사례

▣ 프랑스¹²⁾

- 프랑스는 독서를 개인의 문화활동을 넘어 국가적 문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독서를 ‘국가적 대의(La lecture, grande cause nationale)’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독서운동을 전개함. 어린이·청소년과 독서 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일상적 독서 참여와 독서의 즐거움 확산에 중점을 두었음
- 대표적으로 2022년 3월 10일 오전 10시 전 국민이 15분간 책을 읽는 ‘3월 10일 나는 읽는다(#10marsjelis)’ 캠페인을 추진함. 학교뿐 아니라 기업, 행정기관, 도서관, 서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독서를 일상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였음
- 지역독서계약(Contrats territoire lecture, CTL)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010년 도입된 CTL은 지역 여건에 맞는 독서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문화·독서 접근성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제도임¹³⁾
- 프랑스 사례는 국가적 캠페인과 지역 단위 실행체계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독서정책의 참여 주체도 학교와 도서관에서 기업, 서점, 행정기관, 지역사회로 확대하였음
- 김해시도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20주년인 2027년을 ‘김해 독서의 해’로 설정할 수 있음. 공공·작은도서관, 행정기관, 기업, 지역서점, 문화시설 등이 참여하는 범도시 독서운동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 클레르몽페랑 교육청(Académie de Clermont-Ferrand) 홈페이지

(그림 2-6) 프랑스 독서 캠페인(3월 10일 나는 읽는다)

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2026), 「프랑스 독서교육 정책 및 학교도서관 연계 현황」.

13) 프랑스 문화부(<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livre-et-lecture/pour-les-professionnels-des-bibliotheques/les-politiques-en-faveur-de-la-lecture-publique/contractualisation-territoriale?>)

□ 일본

- 일본은 2001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어린이 독서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책무로 규정함. 국가 기본계획과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였음¹⁴⁾
- 2019년에는 「시각장애자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독서 배리어프리법’을 제정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독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정책 대상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난독증·발달장애 등으로 문자 읽기가 어렵거나 신체장애로 책 이용이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함. 점자도서, 큰글자책, 오디오 자료와 함께 글자 크기·색상 조절, 음성 읽기 등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 이용을 지원함
- 일본은 2025년 제2기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25~2029년임. 법률과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읽기 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임¹⁵⁾
- 김해시도 연령, 장애, 읽기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독서 환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점자도서, 큰글자책, 오디오북, 쉬운 글 자료, 다국어도서, 음성지원 전자책을 확충하고 보조기기 이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s://www.mext.go.jp>)

(그림 2-7) 일본 독서 배리어프리 공식 리플릿 및 독서 배리어프리 컨소시엄 활동

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2026), 「일본의 독서교육 정책 및 학교도서관 연계 현황」.

15) 일본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2025), 「시각장애자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제2기)」.

□ 영국

- 영국은 2026년을 ‘국가 독서의 해(National Year of Reading 2026)’로 지정하고 ‘Go All In’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독서를 국민의 일상에 다시 연결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즐거움을 위한 독서’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¹⁶⁾
- ‘Go All In’은 개인의 관심과 취향에서 독서를 시작하는 방식을 강조함. 스포츠, 음악, 음식, 패션, 게임 등 좋아하는 분야를 책과 연결하고, 종이책뿐 아니라 만화잡자·그래픽노블·오디오북 등 다양한 읽기 방식을 인정함¹⁷⁾
- 정부와 학교·도서관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작가, 스포츠인 등이 캠페인에 참여함. 이를 통해 독서를 특정 기관의 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적 활동으로 확산하고 있음
- 영국은 이와 함께 여름방학 독서챌린지(Summer Reading Challenge), 프리미어리그 리딩 스타(Premier League Reading Stars), 리딩 어헤드(Reading Ahead), 리딩 웰(Reading Well) 등 생애주기와 관심분야에 따른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과 독서 취약계층까지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¹⁸⁾
- 영국 사례는 시민이 자신의 관심사에서 독서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김해시도 스포츠, 여행, 음식, 반려동물, 음악, 건강 등 생활주제별 북큐레이션과 독서 챌린지, 강연·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리딩 웰을 참고하여 독서와 건강·복지정책을 연계할 수도 있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도서관이 협력하여 대상별 추천도서, 북큐레이션, 전문가 강연, 독서모임 등을 운영하는 ‘마음건강 독서처방’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리딩 웰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매 등 대상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16) THE READING AGENCY, <https://readingagency.org.uk/go-reading/our-programmes-and-campaigns/national-year-of-reading-2026/>

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2026.2.11), 「[영국] 국가 ‘독서의 해’ 선포 및 캠페인 전개」.

18) 문화체육관광부(2015),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표 2-6> 해외 독서정책 사례 유형별 비교

구분	프랑스	일본	영국
대표 사업	‘10시, 나는 읽는다’, 지역독서계약, 범국민 독서캠페인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계획, 점자·대활자본·오디오북·디지털 자료 확충	‘Go All In’, 관심사 기반 독서캠페인, ‘Reading Well’
운영 방식	학교·직장·공공기관·도서관·서점·출판계·시민단체가 동시에 참여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학교·복지기관이 연계	학교·가정·도서관·기업·문화기관이 참여하고 건강전문가가 독서를 추천
정책적 특징	일회성 행사보다 일상적 독서시간 확보와 범사회적 참여를 중시	독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규정	독서를 취미에 한정하지 않고 관심사, 정신건강, 신체건강, 복지와 연결
김해시 적용 방향	‘김해시 독서의 해’, ‘김해 10분 독서’, 직장·학교·기관 릴레이 독서 추진	‘김해시 독서 배리어프리 추진계획’ 수립 및 대체자료, 보조기기·지원인력 확충	생활주제별 북큐레이션과 ‘마음건강 독서처방 프로그램’ 도입
김해시 연계 자원	김해시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학교·기업·지역서점	공공도서관,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다문화기관	공공도서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기관

3) 정책적 시사점

▣ 독서를 시민의 권리이자 지방정부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접근

- 프랑스와 영국은 독서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일본은 법률과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독서정책을 개별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의 문화향유와 학습·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줌
- 김해시도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책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간·공간·자료·서비스·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함. 「책 읽는 도시 김해」도 개별 사업이 아닌 도서관·교육·문화·복지·관광정책을 아우르는 도시 차원의 정책 브랜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 속 독서시간과 독서공간 확대

- 프랑스의 ‘3월 10일 나는 읽는다’는 학교·직장·공공기관 등이 일정한 독서시간을 함께 보장하는 방식이며, 서울야외도서관은 광장·하천·공원 등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독서서비스를 확장하여 참여 장벽을 낮추고 있음
- 김해시도 학교·행정기관·기업·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김해 10분 독서’를 운영할 수 있음

- 독후감이나 평가 없는 자유독서를 원칙으로 하고,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오디오북·만화·잡지 등 다양한 읽기 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연지공원, 대성동고분군, 장유권역 공원 등은 권역별 야외독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장소별 북큐레이션, 낭독, 음악, 전시, 지역서점 팝업, 가족체험 등을 결합하여 계절·시간대별 운영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독서와 도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 전주시는 특색 있는 도서관과 완판본 출판문화, 한옥마을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도서관을 도시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음. 이는 도서관이 자료이용시설을 넘어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를 경험하는 문화관광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김해시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지역서점과 대성동고분군, 봉황동 유적, 수로왕릉 등을 연결한 ‘책 읽는 도시 김해 여행’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가야역사·인물·생태·분청도자 등을 해설, 낭독, 북큐레이션, 작가 프로그램, 체험과 결합하여 독서를 지역 정체성과 연결해야 함
- 김해독서대전도 행사장 중심의 강연·체험에서 확장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역사문화공간,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도시형 독서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비독자와 읽기곤란 시민을 위한 포용적 독서환경 조성

- 일본의 어린이 독서정책과 독서 배리어프리 정책은 평균적인 독서량 확대보다 연령·장애·읽기능력에 따른 독서격차 해소를 중시함. 정책 대상도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난독증·발달장애·상지장애 등 일반적인 책 이용이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함
- 김해시도 어린이·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읽기곤란 시민, 다문화가정, 교통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점자도서, 큰글자책, 오디오북, 쉬운 글, 다국어도서, 음성지원 전자책 등을 확충해야 함
-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료·전문인력·기관협력을 포함한 ‘김해시 독서 배리어프리 추진계획’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관심사와 건강·복지를 연결한 독서정책 확대

- 영국의 ‘Go All In’은 스포츠, 음악, 게임, 요리 등 시민의 관심사에서 독서를 시작하도록 유도함. 리딩 웰은 독서를 정신·신체 건강과 정서적 어려움의 이해와 관리에 활용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건강·복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음
- 김해시도 가야역사, 생태, 관광, 반려동물, 건강 등 생활 주제별 북큐레이션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독서를 걷기, 여행, 공연, 요리, 지역탐방과 결합하여 비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음
- 공공도서관과 보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협력하여 추천도서, 독서상담, 강연,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독서처방’ 사업도 검토할 수 있음

□ 시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기획·운영 주체로 전환

- 국내외 사례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양보다 시민의 실질적인 기획·운영 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줌. 전주시는 읽기에서 쓰기·출판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도 학교·기업·서점·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김해시 올해의 책과 김해독서대전도 전문가 중심의 선정,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청소년 독서위원회, 시민 북큐레이터, 독서대전 시민기획단, 지역서점·작은도서관 공동기획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이 독서를 추천하고 북큐레이션과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운영하도록 하여 독서정책에 대한 시민의 선택권과 참여 책임을 함께 확대해야 함

□ 기관 간 협력과 통합적 추진체계 강화

- 독서정책의 성과가 개별 사업 규모보다 학교·가정·도서관·문화시설·복지기관 간 연계에 좌우됨을 보여줌. 프랑스는 국가와 지방정부, 학교·도서관·서점의 협력을 추진하고, 일본은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체계와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 김해시도 개별 도서관이나 사업부서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출판사, 문화예술기관, 보건·복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야외도서관, 지역서점 지원, 독서 배리어프리, 건강·복지 연계사업을 하나의 연간 정책체계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책 읽는 도시 김해」 추진현황 및 성과

1 | 「책 읽는 도시 김해」 추진경과와 추진체계

1) 출범 배경

- 김해시는 2007년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6일 '책 읽는 도시, 김해' 만 들기를 선포하면서 독서와 도서관을 도시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음
- 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포괄적 로드 맵을 마련한 선도 사례로 평가되며, 이후 전국 여러 지자체가 '책 읽는 도 시' 모델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음
- 출범 당시 김해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 에 서, 시민의 정주의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독서문화를 선택 하였다는 점에서 도시발전 전략과 독서정책이 결합된 사례라 할 수 있음
- 정책 초기에는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의 책', 북스타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지원 등 시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실천 기반을 확장하였음

2) 주요 추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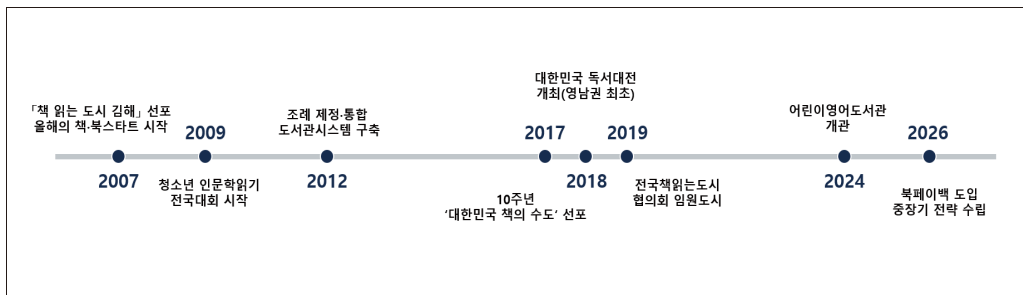
- 「책 읽는 도시 김해」는 2007년 선포 이후 약 20년간 지속되어 온 김해시 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독서 인프라 구축기, 제도화·전국 확산기, 시민참여형 사업 고도화기, 지역 독서생태계 기반 문화도시형 독서정책기로 발전해 왔음
- 인프라 측면에서는 2007년 3만 권 수준이던 지역 장서가 2017년 100만 권을 넘어섰고, 작은도서관도 29개소에서 현재 69개소로 확대되는 등 독 서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음
- 2017년에는 추진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책의 수도'를 선포하며 정책 브 랜드를 고도화하였고, 2018년에는 영남권 최초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 차·개최하여 김해의 독서문화 정책을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시켰음

- 2019년에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임원도시로 활동하는 등 대외 협력 기반도 확대하였음
- 2020년대 이후에는 도서관 중심의 독서정책을 시민 생활권, 지역서점, 독서공동체, 시민작가, 청소년 토론문화 등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2024년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2026년 북페이백 사업 도입 등 사업 다변화가 이어지고 있음

<표 3-1> 「책 읽는 도시 김해」 주요 추진 경과

시기	주요 경과	정책적 의미
2007년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협약,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전국 최초 수준의 도시 단위 독서문화 정책 출발
2009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운영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문화 정착
2012년	발전계획 수립, 작은도서관 조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제도·조직·시스템 기반 마련
2017년	10주년, '대한민국 책의 수도' 선포	정책 브랜드 고도화
2018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개최	전국적 독서문화도시 위상 강화
2019년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참여, 지역 독서공동체 협력 확대	대외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 강화
2020년대	시민작가도서,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김해독서대전 등 사업 다변화	지역 독서생태계 중심 정책으로 전환
2026년	올해의 책 4개 부문 운영,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지속 추진 북페이백 도입(2026년)	시민참여형·세대통합형 독서문화 정책 고도화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 3-1) 「책 읽는 도시 김해」 주요 추진 경과(2007~2026)

3) 추진체계의 변화

- 「책 읽는 도시 김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현재 교육체육국 인재육성과 책읽는도시팀이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책읽는도시팀은 책읽는 도시·독서진흥 업무 기획, 독서대전 및 독서진흥사업 추진,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담당함
- 시립 공공도서관은 행정·운영상 3개 관장 조직을 중심으로 총 7개관이 운영되는 체계임
 - 장유도서관이 율하도서관·김해기적의도서관·어린이영어도서관을 함께 관할하고, 칠암도서관이 화정글샘도서관을 관할하며, 진영한빛도서관은 독립된 운영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장유도서관 4개관, 칠암도서관 2개관, 진영한빛도서관 1개관 등 총 7개 시립도서관이 3개 운영조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교육체육국 전체 정원 105명 가운데 도서관 조직에는 총 63명(장유도서관 28명, 칠암도서관 23명, 진영한빛도서관 12명)이 배치되어 있어, 교육체육국 정원의 약 60.0%가 도서관 운영조직에 배치되어 있음
- 이러한 조직구조는 개별 도서관의 운영인력 비중은 비교적 큰 반면, 도서관·독서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7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및 독서문화사업을 연계하는 정책 총괄 기능은 책읽는도시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임

<표 3-2> 김해시 도서관별 조직과 기능

사업소(정원)	팀 구성	주요 기능
장유도서관 (28명)	관리팀, 열람팀, 율하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어린이영어도서관팀	김해시 거점 도서관 역할 수행, 상호대차(책두레) 서비스 운영, 율하·기적·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칠암도서관 (23명)	관리팀, 열람팀, 화정글샘관리팀, 화정글샘열람팀	미디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 김해책문화센터 및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운영
진영한빛도서관 (12명)	관리팀, 열람팀	독서 진흥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강좌 운영, 시니어 및 철학 특화 사업 추진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제도적으로는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매년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별 운영위원회 등 민간 참여 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표 3-3> 도서관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원장	위원 수	주요 기능
장유도서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장	10명	도서관 운영·발전 기본방침, 독서운동 계획 및 평생교육 지원 협의
칠암도서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장	10명	도서관 운영 효율화, 문화·교육기관 협조 및 의견 수렴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장	10명	도서관 운영 효율화, 지역 유관기관 협조 및 의견 수렴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다만 독서정책 기획(인재육성과)과 도서관 운영(3개소)이 분리된 구조에서 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인력 확보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 AHP 조사에서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가 세부 과제 중 2순위로 나타난 결과와도 연결됨

4) 대표사업의 형성과 확산

- 「김해시 올해의 책」은 2007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 독서문화 사업으로, 현재 대표도서·청소년도서·어린이도서·시민작가도서의 4개 부문으로 운영됨. 특히 시민작가도서 부문은 지역 작가 발굴과 지역문화 자긍심 제고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김해독서대전은 「책 읽는 도시 김해」의 대표 축제형 사업으로 발전하였음. 2025년에는 평생학습과학축제와 통합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책 중심의 독립된 축제로 개편되었고, 60개 프로그램에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 주도형 책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음
-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는 2009년 시작된 전국 최초의 비경쟁 독서토론 대회로,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전국 고등학교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등 생활권 기반 사업과 「작가와 서점 나들이」 등 지역서점 연계 사업이 더해지면서, 대표사업 중심 구조에서 생태계형 사업 포트폴리오로 확장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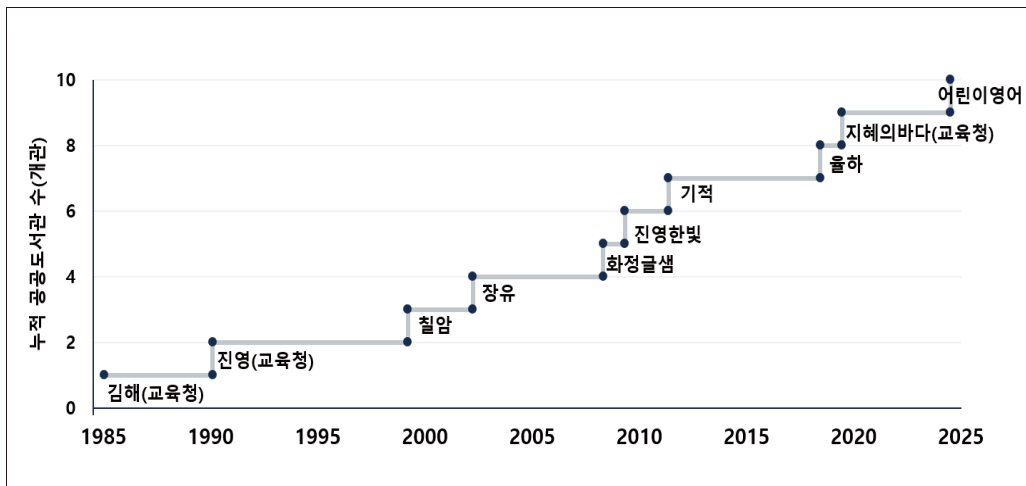
5) 정책적 의의와 현재적 과제

- 「책 읽는 도시 김해」는 단일 지자체 독서정책으로는 드물게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도시 브랜드로 정착하였다는 점, 조례·전담조직·통합도서관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과 함께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큼
- 그러나 정책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현재적 과제가 확인됨. 첫째, 전국적으로 성인 독서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이 주로 기존 독자와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비독자·무관심층으로의 확장이 제한적임
- 둘째, 신도시(장유·울하 등) 중심의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원도심·읍면지역과의 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며, 셋째, 사업이 다양해진 만큼 개별 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대표사업의 유지를 넘어,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학교·지역서점·독서동아리·시민작가를 연결하는 통합적 독서문화 생태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성과관리 정비가 핵심 과제로 제기됨

2 | 독서문화 인프라 현황

1) 공공도서관 현황

- 김해시의 공공도서관은 2026년 1월 기준 총 10개관으로, 시립도서관 7개관(장유, 김해올하, 김해기적, 김해어린이영어, 칠암, 화정글샘, 진영한빛)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3개관(김해, 진영, 김해지혜의바다)으로 구성됨
- 시립도서관은 장유도서관 권역(장유·올하·기적·어린이영어), 칠암도서관 권역(칠암·화정글샘), 진영한빛도서관 권역의 3개 도서관 체제로 운영되며, 교육체육국 소속 3개 도서관에 총 63명(정원 기준)이 배치되어 있음
- 1999년 칠암도서관 개관 이후 2002년 장유, 2008년 화정글샘, 2009년 진영한빛, 2011년 기적의도서관, 2018년 올하, 2024년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이어지는 확충 과정은 인구 성장 촉진 장유권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줌
- 어린이영어도서관과 같은 특성화 도서관, 김해책문화센터·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등 복합 기능 공간이 더해지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인구 55만 도시 규모와 생활권 분포를 고려할 때 권역별 서비스 균형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음



자료) 김해시(2026),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 3-2) 김해시 공공도서관 확충 추이(개관 연도 기준 누적)

<표 3-4> 김해시 공공도서관 현황

(2026. 1.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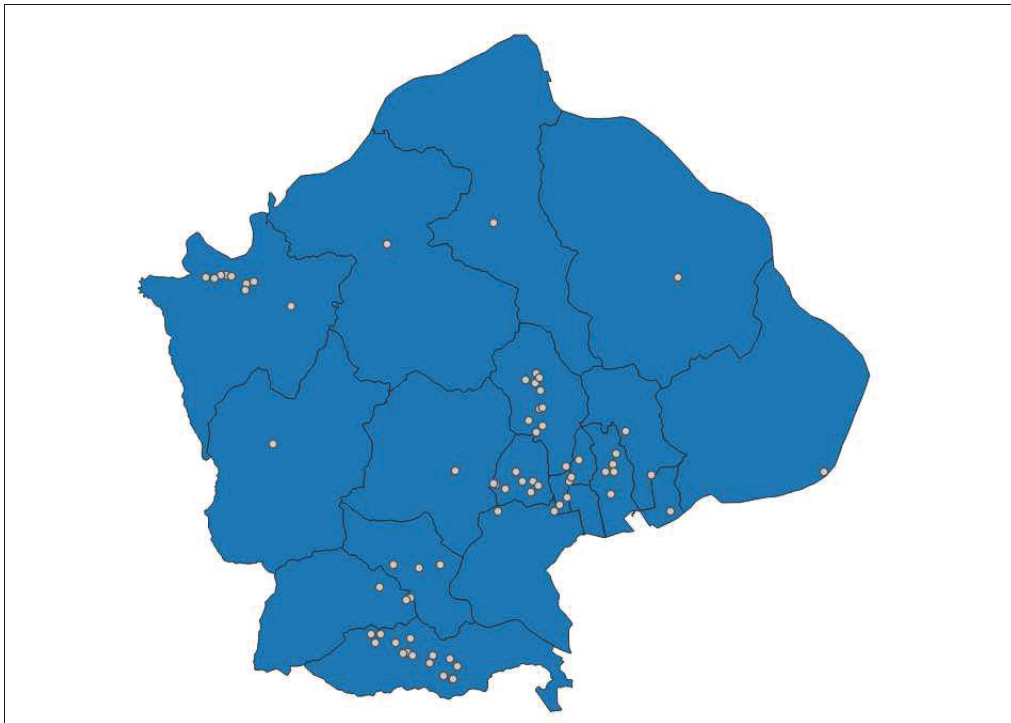
구분	도서관명	개관연도	연면적	소재지
시립(7)	장유도서관	2002	6,825㎡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
	김해올하도서관	2018	3,280㎡	김해시 율하2로 210
	김해기적의도서관	2011	1,458㎡	김해시 율하1로 55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	2024	1,228㎡	김해시 부곡로 57(장유다누리센터 3층)
	칠암도서관	1999	5,868㎡	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
	화정글샘도서관	2008	4,245㎡	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9
	진영한빛도서관	2009	6,581㎡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교육청(3)	김해도서관	1985	6,679㎡	김해시 왕릉길 72
	진영도서관	1990	1,324㎡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265번길 9-61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2019	3,449㎡	김해시 서부로1541번길 8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

2) 작은도서관 현황

- 김해시 작은도서관은 2026년 7월 기준 총 69개소로, 공립 1개소와 사립 68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의 약 98.6%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공립 시설을 직접 확충하기보다 민간 작은도서관을 생활권 독서거점으로 조성·지원해 온 김해시 작은도서관 정책의 특성을 보여줌
 - 사립 작은도서관 중 38개소(55.9%)는 통합도서관시스템에 참여하여 상호 대차(책두레)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음
- 입지 유형은 공동주택 중심의 생활밀착형 구조가 뚜렷함. 사립 작은도서관 68개소 중 아파트 내 도서관이 47개소로 약 69%를 차지하고, 공공시설 10개소, 교회 6개소, 상가 4개소, 주택 1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간분포를 보면 장유지역과 북부동·내외동·진영읍 등 인구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읍·면지역과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분포밀도가 낮게 나타남
 - 장유3동 등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이 다수 집적되어 있는 반면, 면지역은 넓은 공간에 소수의 시설이 분산되어 있음

- 「책 읽는 도시 김해」 추진 초기 작은도서관 29개소에서 현재 69개소로 약 2.4배 확대된 것은 생활권 독서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정책 성과임
- 김해시는 69개 작은도서관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공동주택·도시지역 중심의 공간적 편중과 운영비 지원 여부에 따른 운영여건 차이가 존재하여 향후 정책의 초점을 ‘시설 확충’에서 ‘운영 내실화와 생활권별 서비스 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 3-3) 김해시 작은도서관 현황

3) 학교·지역서점·민간 독서 인프라 현황

- 김해시 관내 학교는 2026년 7월 기준 유치원 80개원,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33개교, 고등학교 23개교 등 총 203개교이며, 학교도서관은 119개관이 운영되고 있음. 학생 수는 약 7만 8천 명 규모의 교육도시로서 학교도서관은 아동·청소년 독서의 일차적 기반임

<표 3-5> 김해시 학교 현황

(2026. 7. 1. 기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합계
학교 수(개교)	80	61	33	23	2	203(대학 4 별도)
학생 수(명)	6,764	28,560	17,697	15,189	429	78,579 (대학 9,940 별도)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

<표 3-6> 김해시 도서관 현황

(2026. 7. 1. 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계
개소 수	10 (시립 7, 교육청 3)	69 (공립 1, 사립 68)	119	4	202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

- 인제대학교 등 4개 대학의 대학도서관이 있으며,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에서 보듯 대학이 지역 독서문화 사업의 협력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지역서점은 작가와 서점 나들이에 참여한 책방모미,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숲으로 된 성벽 등 개성 있는 지역서점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실태조사와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지원체계를 정비해 왔음. 2026년 북페이백 사업 도입으로 서점과 도서관 연계가 본격화될 전망임
- 이 밖에 독서동아리·독서회 등 시민 독서공동체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작가도서 부문 운영에서 보듯 지역 창작 기반도 형성되고 있음. 다만 서점·동아리 등 민간 기반에 대한 체계적 현황 관리와 지원의 제도화 수준은 아직 낮은 편임

4) 생활권별 독서문화 기반 진단

- 김해시의 독서문화 기반을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북부권은 진영읍·한림면·생림면·북부동, 서부권은 주촌면·진례면·장유1·2·3동, 중부권(원도심권)은 동상동·회현동·부원동·내외동·칠산서부동, 동부권은 활천동·삼안동·불암동·상동면·대동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권역별 공공도서관은 북부권에 진영한빛도서관, 진영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 서부권에 장유도서관, 율하도서관, 김해기적의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중부권에 김해도서관, 동부권에 칠암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음
- 권역별 공공도서관 분포를 보면 서부권 5개관, 북부권 3개관에 비해 중부권과 동부권은 각각 1개관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음
 - 서부권은 장유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등 이용대상과 기능이 특화된 도서관이 집적되어 시민의 서비스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일 권역 안에서도 도서관과의 거리와 교통여건에 따라 실제 접근성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부권의 생림면과 동부권의 상동면·대동면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작은도서관과 상호대차, 이동·원격서비스 등을 통해 독서서비스를 보완해야 하는 구조임
 - 이러한 공간적 접근성의 차이는 실제 시민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조사에서 동부권의 도서관 이용률은 41.9%로 전체 평균(73.3%)보다 낮았으며, 독서율 역시 61.3%로 전체 평균(83.0%)보다 낮게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독서문화 기반과 이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보임
-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는 생활밀착형 독서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 읍·면지역과 원도심 일부에서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시설·장서·프로그램 및 운영역량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생활권별 독서문화 기반은 단순한 공공도서관 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인구 및 연령구조, 도서관까지의 이동거리와 교통 접근성, 작은도서관의 분포와 운영수준, 상호대차 등 대체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정책과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북부권은 진영·북부동에 집중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한림·생림 등 읍·면 지역까지 연결하는 권역 내 접근성 격차 완화
 - 서부권은 다수의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시설별 특성화와 기능 연계 및 서비스 고도화
 - 중부권은 원도심의 생활문화·도시재생과 연계한 독서문화 거점 기능 강화
 - 동부권은 낮은 도서관 이용률과 독서율을 고려한 독서서비스 접근성의 우선적 개선
- 특히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함께 순화·이동형 독서서비스, 상호대차,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물리적 거리로 인한 독서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 주요 사업 운영 현황

1)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¹⁹⁾

- 「김해시 올해의 책」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와 「김해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6조(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에 근거한 김해시의 대표 독서운동 사업임
- 도서 선정은 추진협의체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대표도서·청소년도서·어린이도서·시민작가도서 4개 부문에서 각 1권씩 이루어지며, 시민작가 도서는 김해지역 작가의 작품으로 김해의 정서를 담은 도서를 선정함
- 선정도서와 연계하여 작가와의 만남, 토론리더 파견, 독서릴레이, 가족극 공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후감 공모전, 점자도서 제작·보급, 도서기증 등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병행함
- 2026년에는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학교 연계 사업 확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선포식을 김해독서대전 개막식과 연계 개최하여 대표사업 간 결합도를 높이고 있음

2026 김해시 올해의 책 주제 | 사람이 있다, 사람을 잇다

대표 도서: **점들의 나라** 손정남

청소년 도서: **신상문구점** 김선영

어린이 도서: **점들의 나라** 손정남

시민작가 도서: **점들의 나라** 손정남

2026 김해시 올해의 책 연계 독서프로그램 신청서

올해의 책을 읽고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으로 떠나는 여정, 올해의 책을 함께 읽어주세요!

구분	독서릴레이	원화 전시
운영기간	2026. 5. 14.(목) ~ 10. 28.(수)	2026. 5. 4.(월) ~ 11. 20.(금)
운영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 및 직문도서관, 독서동아리, 주민자치단체, 기업 등	어린이 및 시민작가도서 원화 아트프린트 전시
운영내용	부문별 화랑도서 단체 대출 (입제를 통한 제공)	어린이 및 시민작가도서 원화 아트프린트 전시 후 디지털 작품 배급 소고비품은 자체 부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4. 13.(월) ~ 4. 23.(목), 11일간 · 신청서 작성 후, 김해시 인쇄육성과 공문 발송 · 공문 미시행 기간은 입당자 전자우편 제출(email:du30807@korea.kr) · 독서릴레이는 운영일 도제배출(제출, 배급)에 관한 후 진행	신청기간: 2026. 4. 13.(월) ~ 4. 23.(목), 11일간 · 신청서 작성 후, 김해시 인쇄육성과 공문 발송 · 공문 미시행 기간은 입당자 전자우편 제출(email:du30807@korea.kr) · 독서릴레이는 운영일 도제배출(제출, 배급)에 관한 후 진행
결과보고	각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공문 또는 전자우편)	
관련문의	김해시 인쇄육성과 책임노사팀(20055-330-6685)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김해독서대전 누리집(http://m.gmhse.go.kr) 공지사항 참고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

(그림 3-4) 2026 김해시 올해의 책 및 연계 독서프로그램

19) 김해시 내부자료(2026)

2) 김해독서대전²⁰⁾

- 김해독서대전은 「책 읽는 도시 김해」의 대표 축제형 사업으로, 2025년 축제는 4월 26일~27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럭키 Booky, 김해’를 주제로 개최되어 60개 프로그램에 8,000여 명이 참여하였음
- 2025년 축제는 평생학습과학축제와의 통합 운영에서 벗어나 책 중심의 독립 축제로 전환하고, 참여기관을 도서관·독서단체 등에서 도서관·독서단체·출판사·서점 등으로 확대하여 독서공동체 협력형 축제로 개편한 것이 특징임
- 2026년 축제는 4월 4일~5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슬로건 ‘온김해, 독서해’를 바탕으로 운영됨
 - 올해의 책 콘텐츠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책문화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참여형 축제 구현을 통해 김해 대표 책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함
- 2026년 행사 만족도 조사(응답자 767명) 결과 만족 이상 응답이 95%(매우 만족 53%, 만족 4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강연·북페어·공연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5) 2026 김해독서대전 주요 프로그램

3)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²¹⁾

-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는 2009년 시작된 전국 최초의 비경쟁 독서토론 대회로, 청소년(고등학생)이 책 읽기를 통해 삶의 지혜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 김해시 내부자료(2025)

21) 김해시 내부자료(2026)

- 2025년 제15회 대회는 전국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36개 팀, 학생·교사 180명이 참가하였음
- 대회는 저자와의 대화, 질문하는 독자, 토론하는 독자 등 비경쟁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2025년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도교사 워크숍·간담회를 통한 전국 단위 교사 네트워크 형성도 부수적 성과임
- 2026년 대회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32개 학교, 160여 명이 참가하였음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

(그림 3-6)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프로그램

4)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²²⁾

- 김해시립도서관은 장유도서관(장유·울하·기적·어린이영어도서관), 칠암도서관(칠암·화정글샘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의 3개 도서관 체제로 운영되며, 각 도서관은 자료실 운영과 함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층별 독서회, 평생학습강좌, 문화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음
- 도서관별로 김해책문화센터(칠암),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화정글샘), 공연장 등을 함께 운영하여 도서관이 생활문화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영어도서관과 같은 특성화 도서관 운영도 확대되고 있음
- 2026년 도서관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장유도서관 권역은 기적의도서관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디지털 일상으로 스며드는 도서관 운영, 전 생애 독서연대 구축을 위한 북스타트 추진, 어린이영어도서관의

22) 김해시 내부자료(2026)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시민과 지역을 잇는 로컬 콘텐츠 구축 등 도서관 서비스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음

- 칠암도서관 권역은 김해책문화센터 운영과 미디어특화 프로그램,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운영을, 진영한빛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배움 공간 조성, 북드림 도서 행복 배달 서비스를 중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 도서관별 특성화의 방향은 잡혀 있으나, 이를 시 전체 서비스망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능은 과제로 남아 있음
- 2026년에는 도서관과 지역서점을 연계하는 신규 사업으로 북페이백(Book Payback) 사업이 도입됨
 - 시민이 북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사전 신청하고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뒤 3주 이내 반납하면 구매금액 전액을 돌려받고, 해당 도서는 시립도서관 장서로 편입되는 구조임
- 북페이백 사업은 시민의 신간 접근성(대기시간 해소)과 지역서점 매출 증대, 도서관 장서 확충을 동시에 도모하는 도서관과 서점 상생모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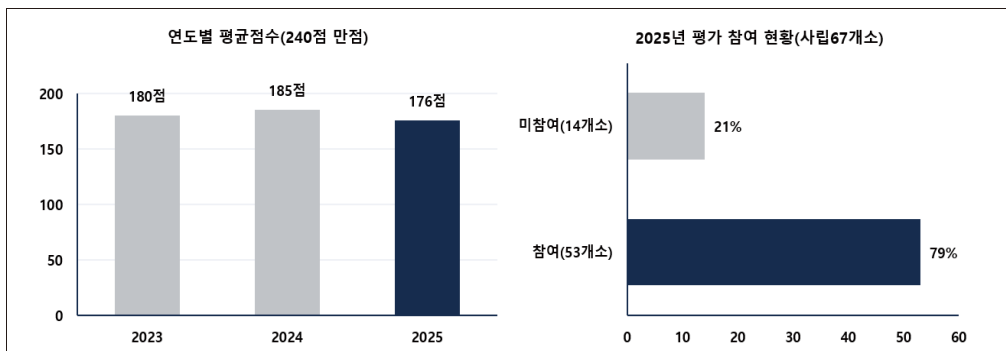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좌)김해시 홈페이지(우)

(그림 3-7) 장유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북페이백 사업

5) 작은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김해시 작은도서관은 2026년 7월 기준 총 69개소로, 공립 1개소와 사립 68개소로 구성됨
 - 사립 가운데 38개소는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책두레 상호대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30개소는 운영비와 상호대차 지원을 받지 않음
 - 다만 미지원 도서관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일부 도서구입비 지원이 가능함
-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단지와 생활권에 밀착하여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책두레 서비스는 작은도서관의 제한된 장서를 보완하고 자료 이용 편의를 높이는 주요 서비스로 기능함
- 김해시는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매년 사립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운영실태 파악과 정책·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향후에는 운영평가와 도서관별 여건을 연계한 차등·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수 도서관에는 인센티브와 역할 확대를 지원하고, 운영 취약 도서관에는 컨설팅·교육·장서확충 등 역량강화형 지원을 제공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야 함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그림 3-8)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2023~2025)

- 이와 함께 안동문화의집작은도서관의 ‘만화’ 연계 웹툰창작체험관, 김해글로벳도서관의 ‘다문화’ 연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등 특성화 사업과 작은도서관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복합기능 사업도 운영되고 있음

6) 지역서점 및 민간 독서문화 연계사업

- 김해시는 2017년 「김해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김해시 동네책방’ 선정기준을 마련함
 - 선정 서점에는 공공기관 도서 우선구매와 「작가와 서점 나들이」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 독서문화 거점으로 육성해 왔음
- 지역서점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됨. 2019년부터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실질 운영 서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선정기준과 관리방식을 재검토함
- 2025년 7월 마련된 운영 개선안은 실질적 소매영업 여부와 시민 이용 개방성 등을 확인하는 기준을 보완하고, 2026년부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함
- 대표사업인 「작가와 서점 나들이」는 서점 특성과 이용층에 맞는 작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임
 - 2025년에는 책방모미,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숲으로 된 성벽 등 3개 서점에서 4회 운영하여 시민 103명이 참여함. 이를 통해 지역서점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문화교류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확인함²³⁾
- 다만 현재 지원은 일부 서점의 프로그램과 공공부문 도서구매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서점을 중심으로 도서구매·독서프로그램·홍보·문화기획 역량을 연계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6년 북페이백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민 도서구매 지원, 「작가와 서점 나들이」, 김해독서대전 참여, 운영역량 강화를 연계하여 지역서점을 생활권 독서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7) 기타 독서문화진흥 사업

- 김해시 통합도서관 시스템에 참여하는 47개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가까운 공공 작은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책두레)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생활권 어디서나 시 전체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독서 인프라임

23) 김해시 내부자료(2025)

- 2025년 상호대차 대출·반납자료 수는 540,551권으로 2015년 대비 249,157권, 85.5%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6.4%에 해당함

<표 3-7> 상호대차 서비스(책두레) 이용 현황

연도	상호대차 이용량(권)	증감률(%)
2010년	225,440	-
2011년	301,934	33.9
2012년	338,834	12.2
2013년	296,392	-12.5
2015년	291,394	-1.7
2025년	540,551	85.5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북스타트 등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사업, 계층별 독서회와 독서동아리 지원, 독후감 공모전, 점자도서 제작·보급 등 다양한 독서진흥·독서복지 사업도 운영되고 있음
- 2026년에는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3대 대표사업을 연계하고, 지역 문화기관과 협업한 융합형 독서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내 도서공간 조성, 특성화도서관 운영 등 공간 확충사업도 병행하여 독서 인프라와 콘텐츠를 함께 강화하고 있음

<표 3-8> 김해시 독서문화 주요 사업 총괄

사업명	시기	주요 내용 및 실적
김해시 올해의 책	연중	4개 부문(대표·청소년·어린이·시민작가) 도서 선정, 작가와의 만남, 독서퀴즈·독후감 공모 등 연계 프로그램
김해독서대전	2026.4.4.~5.	80개 프로그램 8,500여명 참여, 올해의 책 콘텐츠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2026.7.22.~23.	제16회, 전국32개 팀 160명 참가
북페이백 사업(신규)	2026.7.~	지역서점 도서 구매 후 반납 시 전액 환급, 반납도서 도서관 장서 편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연중	69개소(공립 1, 사립 68),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자 역량 강화 등
작가와 서점 나들이	하반기	2025년 지역서점 3개소, 4회, 103명 참여
상호대차 서비스(책두레)	상시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39개소(사립38, 공립1), 기타 1개소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4 | 부문별 성과와 한계

1) 인프라 부문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시 전역의 독서문화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음
 - 공공도서관은 1999년 칠암도서관 이후 2024년 어린이영어도서관까지 확대되어 시립 7개관, 교육청 3개관 등 총 10개관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작은도서관도 정책 초기 29개소에서 69개소로 증가함
- 통합도서관시스템과 상호대차 서비스(책두레)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공유가 가능해졌으며, 장서 규모도 크게 증가함
 - 김해책문화센터,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어린이영어도서관 등 특성과 복합형 독서문화공간도 확대되어 인프라의 질적 다양성이 높아졌음
- 반면 공공도서관 분포와 실질적 접근성에는 권역별 차이가 있음
 - 북부권은 진영한빛·진영·화정글샘도서관, 서부권은 장유·울하·기적·어린이영·지혜의바다도서관, 중부권은 김해도서관, 동부권은 칠암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권이 형성되어 있음
 - 특히 시립도서관 7개관 중 4개관이 서부권에 위치하여 권역별 공급여건에 차이가 나타남
- 동부권은 칠암도서관이 활천·삼안·불암동과 상동·대동면까지 광범위하게 담당하고 있으며, 상동·대동면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음
 - 북부권에서도 생림면은 공공도서관이 없어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이동·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 시민조사에서도 동부권의 최근 1년 도서관 이용률은 46.7%로 전체 평균 73.3%보다 26.6%p 낮고 4개 권역 중 가장 낮았음
 - 향후에는 시설 수뿐 아니라 이동거리, 대중교통, 작은도서관 운영수준, 상호대차,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한 생활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은 생활권 독서서비스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했으나 운영역량과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큼
 - 운영비와 책두레 서비스 지원 여부도 도서관별로 달라, 향후에는 운영평가와 시설별 여건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요구됨

- 장서 총량은 증가했으나 신간과 이용자 맞춤형 자료에 대한 체감 부족은 지속되고 있음
 - 시민조사에서 신간 부족과 원하는 자료 부족을 합한 비율은 55.0%였으며, IPA분석에서도 ‘도서자료의 다양성’이 집중개선 영역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인프라 정책은 신규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권 접근성 개선, 기존 시설 기능 고도화, 장서 갱신, 희망도서 제공속도 개선, 전자책·오디오북·큰글자책 등 자료 다양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콘텐츠 부문

- 「김해시 올해의 책」,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김해독서대전 등 20년 가까이 지속된 대표 독서문화사업군이 형성되어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정책 연속성과 대외적 상징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대표사업의 운영방식과 협력구조도 발전함. 2025년 김해독서대전은 책 중심의 독립 축제로 개최되어 60개 프로그램에 약 8,000명이 참여하였고, 참여기관도 도서관·출판사·지역서점 등 30개 독서공동체로 확대됨. 행사 만족도도 99.6%로 높게 나타남
- 북스타트, 작가와 서점 나들이, 북페이백 등 생애주기·생활권·지역서점 연계사업도 확대됨. 「올해의 책」은 대표·청소년·어린이·시민작가 등 4개 부문으로 확대되어 지역작가 발굴과 세대별 참여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만족도에 비해 시민 전체의 참여는 제한적임. 최근 1년 독서문화사업 참여율은 24.0%에 그쳤으며, 참여자는 여성과 도서관 정기이용자 등 기존 독서 친화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됨. 반면 참여자 만족도는 4.00점으로 높아 사업 내용보다 접근성과 홍보가 주요 과제로 판단됨
-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한계가 있음. 시민은 글쓰기·창작 등 직접 참여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선호하지만, 현재 주요 사업은 강연·공연·축제·일회성 체험 등 관람·참석형 프로그램 비중이 높음. 시민이 독자에서 토론자·창작자·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연속형 프로그램이 부족함
- 대표사업 간 연계와 참여 이후의 성장경로도 충분하지 않음. 올해의 책, 독서릴레이, 독후감 공모, 독서대전, 시민작가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서 동아리, 글쓰기, 출판, 시민작가 발굴, 창작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미흡함

- 향후에는 개별 사업의 참여인원 확대보다 시민이 독서, 토론, 창작, 출판, 지역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서문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대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시민참여·독서공동체 부문

- 올해의 책 시민투표, 김해독서대전 슬로건·프로그램 공모, 초청작가 선호도 조사, 민관 추진협의체 등 시민참여 장치가 확대되면서 행정 주도형에서 시민·관계기관 공동기획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책 읽는 도시 김해」 인지도도 75.0%로 나타나 정책브랜드가 일정 수준 정착한 것으로 평가됨
- 도서관·지역서점·독서단체 간 협력기반도 확대됨. 2025년 김해독서대전에는 30개 독서공동체가 참여하였고, 「작가와 서점 나들이」는 지역서점을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 그러나 정책 인지도와 실제 참여에는 큰 차이가 있음. 정책 인지도는 75.0%이나 독서문화사업 참여율은 24.0%에 그쳤음. 신규사업 확대보다 통합 홍보와 정보 전달체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특히 청소년·청년층과 비독자층에 대한 브랜드 전달력이 낮음. 10~20대에서는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도서관 누리집과 현수막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학교·대학·직장·지역상권, 카카오톡, 문자, 세대별 SNS 등 생활접점 중심의 채널 전략이 필요함
- 독서공동체 활동도 아직 제한적임. 최근 1년 독서모임·독서동아리 활동 경험률은 9.3%로 낮아 개인 이용과 행사 참여가 시민 간 관계 형성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기존 동아리 지원과 함께 신규 동아리 인큐베이팅, 세대·직장·마을 단위 독서모임, 활동가 양성이 필요함
- 민관 협력도 개별사업 중심에 머무르고 있음. 현재 추진협의체는 올해의 책, 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어 독서문화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상설 협력체계는 미비함
- 향후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교육지원청·학교, 지역서점, 대학, 문화예술단체,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정책 공동기획·평가·자원연계를 수행하는 상설 독서문화정책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IV 독서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1 | 시민 독서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설계 및 방법

- 「책 읽는 도시 김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문화 정책 수요 및 도서관 이용 인식조사임
- 시민의 독서문화 경험, 도서관 이용행태, 정책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우선 추진할 독서문화 정책과 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조사는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유효표본 300부를 분석에 활용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5.7\%p$ 임

2) 응답자 특성

- 성별은 ‘남성’ 49.3%, ‘여성’ 50.7%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 연령별로는 ‘40대’ 30.3%, ‘30대’ 25.7%, ‘50대’ 17.0%, ‘20대’ 12.0%, ‘10대’ 8.0%, ‘60대 이상’ 7.0% 순임
- 거주지역은 개별 읍·면·동을 김해시의 통상적 생활권과 공공도서관 서비스권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음. 북부권은 진영읍·한림면·생림면·북부동, 서부권은 주촌면·진례면·장유1·2·3동, 중부권(원도심권)은 동상동·회현동·부원동·내외동·칠산서부동, 동부권은 활천동·삼안동·불암동·상동면·대동면으로 구성함
- 권역별 응답자는 ‘서부권’ 36.7%, ‘중부권(원도심권)’ 33.3%, ‘북부권’과 ‘동부권’ 각각 15.0%임. 도서관 이용, 「책 읽는 도시 김해」 인지도, 독서문화 정책수요도 동일한 권역 구분을 적용하여 분석함
- 가구 내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응답자는 43.0%, 없는 응답자는 57.0%로 나타남

<표 4-1> 응답자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48	49.3
	여성	152	50.7
연령대	10대	24	8.0
	20대	36	12.0
	30대	77	25.7
	40대	91	30.3
	50대	51	17.0
	60대 이상	21	7.0
거주지역	북부권(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북부동)	45	15.0
	서부권(주촌면, 진례면, 장유1,2,3동)	110	36.7
	중부권(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100	33.3
	동부권(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상동면, 대동면)	45	15.0
초·중·고 학생 여부	있다	129	43.0
	없다	171	57.0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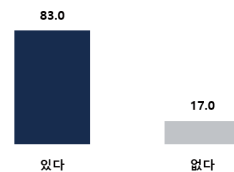
3) 독서실태와 독서활동

▣ 독서생활 및 독서문화 인식

- 최근 1년 동안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1권 이상 읽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3.0%, 없는 응답자는 17.0%로 나타남

<표 4-2> 최근 1년 독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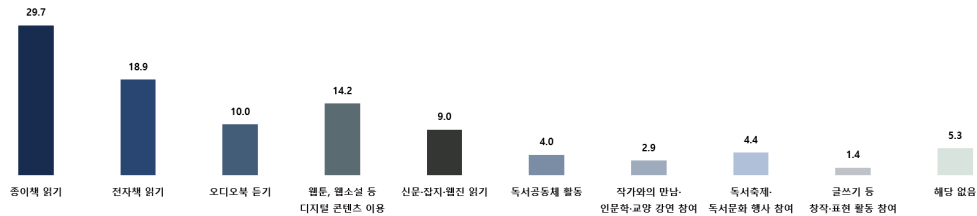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있다	249	83.0
없다	51	17.0
합계	300	100.0



- 독서 관련 활동은 ‘종이책 읽기’ 29.7%, ‘전자책 읽기’ 18.9%,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14.2%, ‘오디오북 듣기’ 10.0% 순으로 나타남
- 종이책 읽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자책, 웹툰·웹소설, 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읽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독서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3> 독서 관련 활동 경험(다중응답)

구분	빈도	비율(%)
종이책 읽기	207	29.7
전자책 읽기	132	18.9
오디오북 듣기	70	10.0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99	14.2
신문·잡지·웹진 읽기	63	9.0
독서공동체 활동	28	4.0
작가와의 만남·인문학·교양 강연 참여	20	2.9
독서축제·독서문화 행사 참여	31	4.4
글쓰기 등 창작·표현 활동 참여	10	1.4
해당 없음	37	5.3
합계	697	100.0



- 독서활동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시간 부족’ 35.7%로 나타났으며, ‘책 읽는 습관 부족’ 16.7%, ‘다른 매체 이용 증가’ 16.0%, ‘읽을 책을 선택하기 어려움’ 10.7% 순임. 이는 물리적 제약보다 시간 부족, 독서습관 미형성, 도서 선택의 어려움이 주요 장애요인임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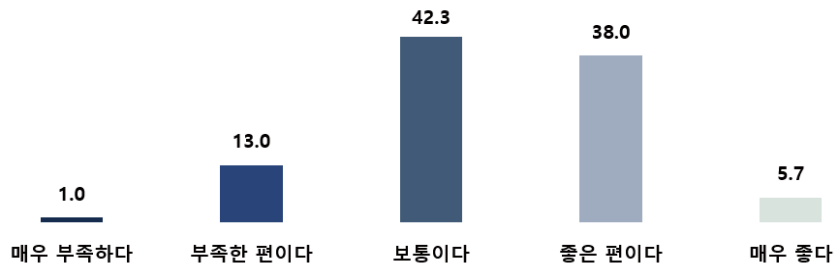
<표 4-4> 독서 활동 저해 요인(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시간이 부족해서	107	35.7
다른 매체 이용이 많아서	48	16.0
책 읽는 습관이 부족해서	50	16.7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32	10.7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부족해서	12	4.0
책 구입 비용이 부담되어서	13	4.3
책을 빌리거나 구할 수 있는 도서관·서점 등이 멀어서	8	2.7
참여하고 싶은 독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13	4.3
독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4	1.3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2	0.7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0	0.0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11	3.7
기타	0	0.0
합계	300	100.0

- 김해시 독서문화 환경에 대한 긍정 평가(좋은편이다 또는 매우 좋다)는 43.7%였으며, 보통 42.3%, 부정적 평가는 14.0%로 나타남

<표 4-5> 독서문화 환경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족하다	3	1.0
부족한 편이다	39	13.0
보통이다	127	42.3
좋은 편이다	114	38.0
매우 좋다	17	5.7
합계	300	100.0



- 김해시가 ‘책 읽는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47.0%, 부정 응답은 17.3%로 나타나 독서도시 브랜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나, 과반을 넘는 수준까지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4-6> 책 읽는 도시 이미지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	2.3
그렇지 않다	45	15.0
보통이다	107	35.7
그렇다	103	34.3
매우 그렇다	38	12.7
합계	300	100.0

- 최근 1년 독서경험률은 ‘여성’ 88.2%, ‘남성’ 77.7%로 여성이 10.5%p 높았으며,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연령별로는 ‘40대’가 92.3%로 가장 높았고, ‘30대’ 84.4%, ‘10대’ 79.2%, ‘50대’ 78.4%, ‘20대’ 72.2%, ‘60대 이상’ 71.4%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함
- 권역별로는 ‘서부권’ 86.4%, ‘중부권’ 85.0%, ‘동부권’ 77.8%, ‘북부권’ 75.6%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따라서 거주지역이 독서경험 자체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도서관 이용 경험 및 인식

-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3.3%였으며, 이용 빈도는 ‘월 2~3회’ 22.0%, ‘월 1회’ 20.7%, ‘주 1회 이상’ 15.3%, ‘연 1~3회’ 15.3%로 나타남

<표 4-7> 최근 1년 도서관 이용 빈도

구분	빈도	비율(%)
주 1회 이상	46	15.3
월 2~3회	66	22.0
월 1회 정도	62	20.7
연 1~3회	46	15.3
이용한 적 없음	80	26.7
합계	300	100.0

- 성별로는 ‘여성’의 최근 1년 도서관 이용률이 83.6%로 ‘남성’ 62.8%보다 20.8%p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40대’ 84.6%, ‘30대’ 79.2%, ‘50대’ 74.5%, ‘10대’ 66.7%, ‘20대’ 52.8%, ‘60대 이상’ 42.9% 순으로 나타남.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의 도서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권역별 도서관 이용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서부권’은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률이 90.0%로 가장 높은 반면, ‘동부권’은 46.7%에 그쳐 43.3%p의 격차가 나타남. ‘북부권’도 62.2%로 전체 평균 73.3%를 하회하였으며, 권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4-8> 권역별 독서경험률 및 도서관 이용률

구분	최근 1년 독서경험률	도서관 이용률
북부권	75.6	62.2
서부권	86.4	90.0
중부권(원도심권)	85.0	72.0
동부권	77.8	46.7

- 독서경험률은 권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도서관 이용률은 뚜렷한 격차를 보임. 이는 동부권과 북부권의 낮은 이용률이 독서 관심보다 도서관 접근성과 서비스 접점의 차이와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함
- 향후 도서관 정책은 시설 수 확대보다 생활권별 실제 이용격차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동부권과 북부권을 우선 보완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주 이용 도서관은 ‘장유도서관’ 22.7%, ‘작은도서관’ 19.1%, ‘김해도서관’ 12.7%, ‘김해기적의도서관’ 10.9% 순이며, 이용 목적은 도서 대출·반납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9> 주로 이용한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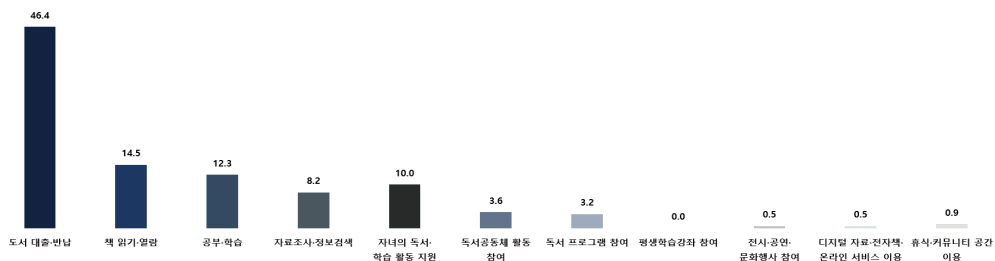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칠암도서관	8	3.6
장유도서관	50	22.7
화정글샘도서관	9	4.1
진영한빛도서관	20	9.1
김해기적의도서관	24	10.9
김해울하도서관	20	9.1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	9	4.1
김해도서관	28	12.7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5	2.3
작은도서관	42	19.1
학교도서관	3	1.4
기타	2	0.9
합계	220	100.0

- 도서관 이용 목적은 ‘도서 대출·열람’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업무’ 14.5%, ‘문화활동’ 12.3%, ‘자녀 독서·학습 지원’ 10.1%, ‘자료조사·정보검색’ 8.2% 순으로 나타남. 이는 도서관이 여전히 지식정보 이용의 기본 공간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문화교육적 기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존재함을 보여줌

- 향후 도서관 서비스는 자료 대출·열람 기능을 충실히 유지하면서 문화·교육·가족 단위 프로그램 등 복합적 이용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표 4-10> 도서관 이용 목적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도서 대출·반납	102	46.4
책 읽기·열람	32	14.5
공부·학습	27	12.3
자료조사·정보검색	18	8.2
자녀의 독서·학습 활동 지원	22	10.0
독서공동체 활동 참여	8	3.6
독서 프로그램 참여	7	3.2
평생학습강좌 참여	0	0.0
전시·공연·문화행사 참여	1	0.5
디지털 자료·전자책·온라인 서비스 이용	1	0.5
휴식·커뮤니티 공간 이용	2	0.9
합계	220	100.0



- 주 이용 도서관의 서비스와 환경에 대한 만족 이상 응답은 70.0%였으며, 이용 시 아쉬운 점은 ‘신간도서 부족’ 17.3%, ‘도서·자료 부족’ 15.5%, ‘휴식·커뮤니티 공간 부족’ 8.6% 순으로 나타남

<표 4-11> 도서관의 서비스와 환경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8	3.6
보통	58	26.4
만족	115	52.3
매우 만족	39	17.7
합계	220	100.0

<표 4-12> 도서관 이용 시 아쉬운 점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집이나 직장에서 멀다	18	8.2
도서·자료가 부족하다	34	15.5
신간도서가 부족하다	38	17.3
디지털 자료·전자책 서비스가 부족하다	16	7.3
공간이 넓거나 불편하다	16	7.3
어린이·청소년 공간이 부족하다	12	5.5
휴식·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	19	8.6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9	4.1
개관시간이 짧다	5	2.3
안내·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	1	0.5
특별히 아쉬운 점 없음	50	22.7
기타	2	0.9
합계	220	100.0

- 최근 1년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이용 이유는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가 37.5%로 가장 높았고, ‘도서관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와 ‘도서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어서’가 각각 17.5%로 나타남

<표 4-13> 최근 1년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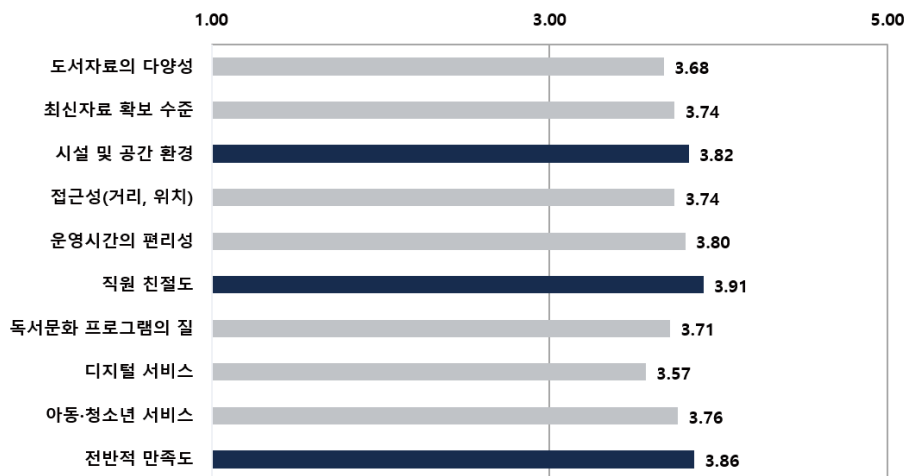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	30	37.5
도서관이 집·직장·학교에서 멀어서	3	3.8
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이나 자료가 부족해서	1	1.3
도서관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14	17.5
도서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어서	14	17.5
도서관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8	10.0
책은 주로 구입해서 읽어서	1	1.3
온라인 콘텐츠를 주로 이용해서	9	11.3
합계	80	100.0

- 향후 도서관 개선 방향은 ‘집 가까운 생활권 도서관 확충’ 16.0%, ‘어린이·청소년 특화 서비스 강화’ 14.7%,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14.7%, ‘장서·신간·전문자료 확충’ 13.3% 순으로 나타남

<표 4-14> 도서관 개선 방향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집 가까운 생활권 도서관 확충	48	16.0
장서·신간·전문자료 확충	40	13.3
전자책·오디오북·디지털 콘텐츠 확대	35	11.7
어린이·청소년 특화 서비스 강화	44	14.7
중장년·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31	10.3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44	14.7
휴식·커뮤니티 공간 확대	16	5.3
야간·주말 이용 편의 개선	15	5.0
독서상담·책 추천 서비스 강화	9	3.0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13	4.3
지역서점·문화공간과의 연계 강화	4	1.3
기타	1	0.3
합계	300	100.0

- 도서관 서비스의 ‘ 전반적 만족도 ’는 5점 만점에 3.86점이었으며, ‘직원 친절도’가 3.91점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 서비스’가 3.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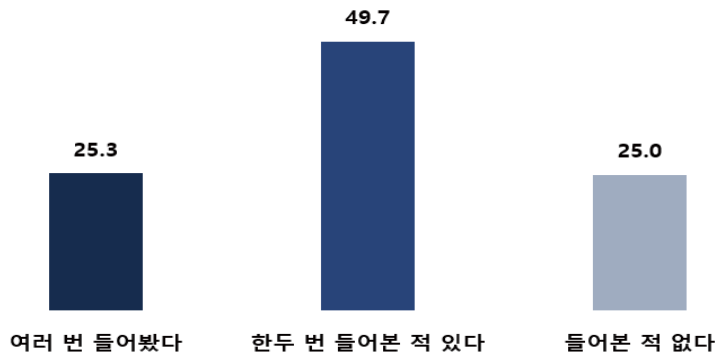
(그림 4-1)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 김해시 독서문화사업 인지도 및 참여 경험

- 「책 읽는 도시 김해」를 한두 번 들어본 응답자는 49.7%, 여러 번 들어본 응답자는 25.3%, 들어본 적 없는 응답자는 25.0%로 나타남

<표 4-15> 「책 읽는 도시 김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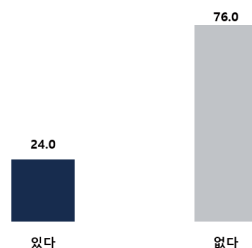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여러 번 들어봤다	76	25.3
한두 번 들어본 적 있다	149	49.7
들어본 적 없다	75	25.0
합계	300	100.0



- 최근 1년 동안 김해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4.0%,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6.0%로 나타남

<표 4-16> 독서문화 프로그램·행사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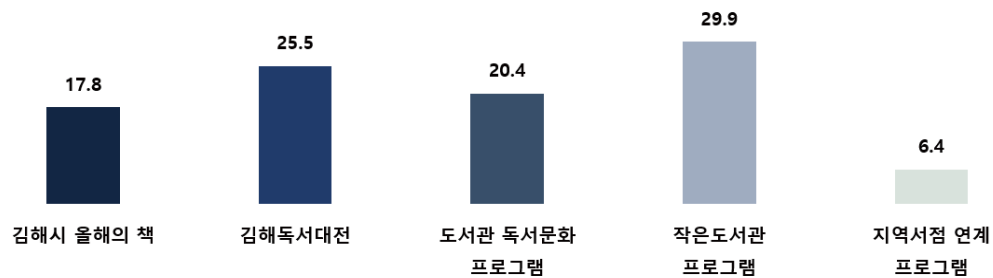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있다	72	24.0
없다	228	76.0
합계	300	100.0



- 참여한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29.9%, ‘김해독서대전’ 25.5%,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20.4%, ‘김해시 올해의 책’ 17.8% 순으로 나타남

<표 4-17> 참여한 프로그램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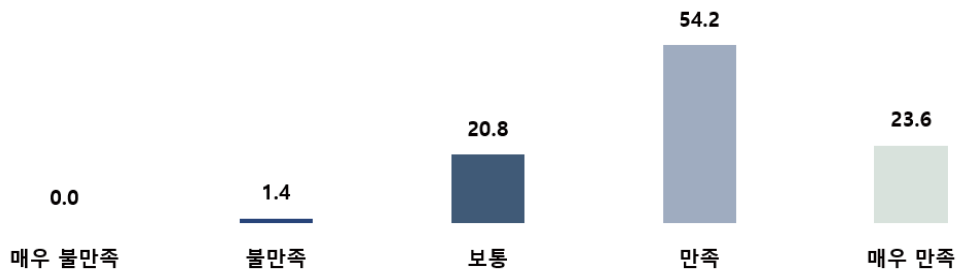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김해시 올해의 책	28	17.8
김해독서대전	40	25.5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32	20.4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47	29.9
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	10	6.4
기타	0	0.0
합계	157	100.0



○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이상 응답은 77.8%였으며, 보통 20.8%, 불만족 1.4%로 나타남

<표 4-18>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1	1.4
보통	15	20.8
만족	39	54.2
매우 만족	17	23.6
합계	72	100.0



-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35.1%, ‘장소가 멀거나 접근이 불편해서’ 20.2%, ‘프로그램 정보를 몰라서’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각각 16.2%로 나타남

<표 4-19>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37	16.2
시간이 맞지 않아서	80	35.1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37	16.2
장소가 멀거나 접근이 불편해서	46	20.2
신청 방법이 불편해서	18	7.9
독서행사에 관심이 없어서	10	4.4
기타	0	0.0
합계	2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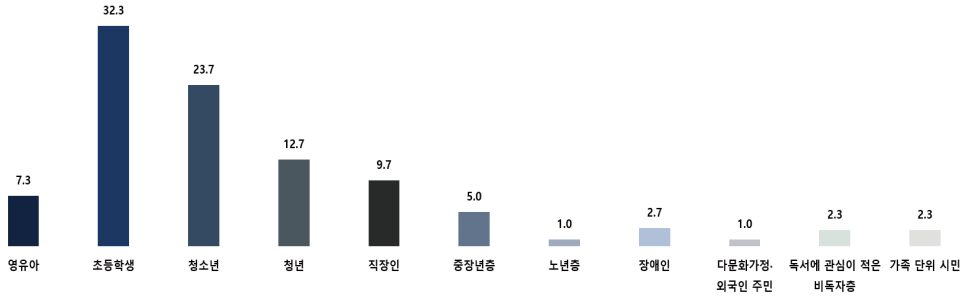
- 독서문화사업 정보 습득 희망 경로는 ‘문자·카카오톡 알림’ 29.0%,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24.3%, ‘도서관 누리집’ 12.0%, ‘지역 커뮤니티·맘카페’ 10.3% 순으로 나타남

<표 4-20> 독서문화사업 정보 습득 희망 경로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김해시청 누리집	29	9.7
도서관 누리집	36	12.0
문자·카카오톡 알림	87	29.0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73	24.3
지역 커뮤니티·맘카페	31	10.3
학교·직장·기관 안내	16	5.3
도서관 현장 홍보물	18	6.0
아파트 게시판·마을 게시판	8	2.7
지역언론	2	0.7
기타	0	0.0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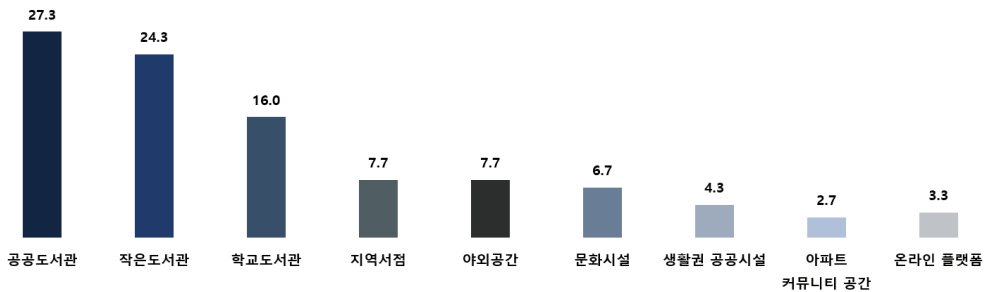
□ 독서문화 정책수요 및 우선순위

- 독서문화정책을 우선 강화해야 할 대상은 ‘초등학생’ 32.3%, ‘청소년’ 23.7%, ‘청년’ 12.7%, ‘직장인’ 9.7%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독서문화정책 강화 대상 (1순위)

- 독서문화정책에서 우선 강화해야 할 공간은 ‘공공도서관’ 27.3%, ‘작은도서관’ 24.3%, ‘학교도서관’ 16.0% 순이었으며, 1·2순위 종합에서는 ‘작은도서관’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3) 독서문화 정책에서 강화되어야 할 공간 (1순위)

- 참여 희망 프로그램은 1순위 기준 ‘독서축제·독서문화 행사’ 17.7%, ‘작가·인문학 강연 등 독서 프로그램’ 15.7%, ‘독서공동체 활동’ 14.3%, ‘창작·표현 활동’ 14.0% 순으로 나타남

<표 4-21> 참여하고 싶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작가·인문학 강연, 교양 강좌 등 독서 프로그램	47	15.7
독서공동체 활동	43	14.3
창작·표현 활동	42	14.0
독서축제·독서문화 행사	53	17.7
디지털 문해력 및 AI 활용 프로그램	26	8.7
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	23	7.7
부모교육 및 자녀 독서지도 프로그램	16	5.3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 프로그램	16	5.3
청년·성인·직장인 대상 독서 프로그램	12	4.0
시니어 대상 독서 프로그램	4	1.3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11	3.7
마음건강·치유 독서 프로그램	7	2.3
기타	0	0.0
합계	300	100.0

-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 분야는 1순위 기준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32.0%,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31.7%로 나타났으며, 1·2순위 종합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이 32.4%로 가장 높았음

<표 4-22>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 기반 강화	74	24.7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95	31.7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96	32.0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35	11.7
합계	300	100.0

-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1순위 기준 ‘생활권 독서공간 확대’ 21.3%, ‘프로그램 다양화와 질적 개선’ 19.3%,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강화’ 19.0%, ‘홍보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 16.3% 순으로 나타남

<표 4-23> 독서문화 정책 효과 제고 방안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생활권 독서공간 확대	64	21.3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	58	19.3
홍보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	49	16.3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	34	11.3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강화	57	19.0
학교·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12	4.0
지역서점·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 강화	9	3.0
독서취약계층 지원 확대	3	1.0
정책성과 평가와 지속적 개선	11	3.7
예산 확대	3	1.0
기타	0	0.0
합계	300	100.0

2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정책 우선순위 분석

1) 조사설계

- 「책 읽는 도시 김해」 중장기 발전전략의 정책과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실시함
- 조사대상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행정기관 등 김해시 도서관·독서문화 정책 관계자 40명으로 구성함. 현장 경험을 가진 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였음
- AHP 조사체계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2계층으로 구성함. 제1계층은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기반 강화,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의 4개 정책영역으로 구성함
- 제2계층은 각 정책영역별 4개씩 총 16개 세부과제로 구성함. 이를 통해 정책영역별 중요도와 세부과제별 중요도를 산출하고, 이를 결합하여 전체 세부과제의 종합 우선순위를 도출함

<표 4-24> 전문가 AHP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행정기관 관계자
조사인원	40명
조사방법	전문가 대상 AHP 쌍대비교 조사
분석구조	2계층 구조
제1계층	4개 정책영역
제2계층	정책영역별 4개 과제, 총 16개 세부과제

2) 조사내용 및 계층구조

- 제1계층의 4개 정책영역은 시민 독서문화 참여 확대, 도서관 서비스 혁신, 생활권 접근성 개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음

- 각 정책영역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가 동일 계층 내 평가요소를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도록 설계하였음

<표 4-25> AHP 분석 계층구조

정책영역(제1계층)	세부과제(제2계층)
A.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기반 강화	A1.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A2. 독서동아리·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A3. 생애주기별·대상별 새로운 책문화 콘텐츠 개발 A4. 대표 독서행사 고도화
B.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B1. 다양한 정보자원 확충 B2. 디지털·스마트 서비스 확대 B3.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B4. 독서취약계층·비독자 맞춤 서비스
C.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C1.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C2. 스마트·야외도서관 등 독서접점 확대 C3.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지원체계 개선 C4.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D.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D1. 전담조직·전문인력 강화 D2. 민관협력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 D3.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 D4.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대외협력

3) 분석방법

- 동일 계층의 정책영역과 세부과제를 각각 쌍대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 제1계층에서는 4개 정책영역, 제2계층에서는 각 영역별 4개 세부과제의 중요도를 분석함
- 전문가 판단의 일관성은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로 검토하였으며, CR 0.15 이하를 유효응답 기준으로 적용함. 제1계층 분석에서는 전체 40명 중 기준을 충족한 17명의 응답을 활용함
- 최종 우선순위는 제1계층 정책영역 중요도와 제2계층 세부과제 중요도를 결합한 종합 중요도로 산출함. 이를 통해 16개 세부과제를 동일 기준에서 비교하여 전체 우선순위를 제시함

4)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자 40명의 소속은 ‘작은도서관’ 57.5%, ‘공공도서관’ 40.0%, ‘행정기관’ 2.5%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실무자’ 87.5%, ‘관리자’ 12.5%로 구성됨
- 전문분야는 ‘도서관 운영’ 57.5%가 가장 많았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30.0%, ‘독서교육’ 5.0%, ‘행정·거버넌스’ 5.0%, ‘문화정책’ 2.5%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응답자는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표 4-26> AHP 조사 응답자 특성

항목		빈도	비율(%)
소속분야	공공도서관	16	40.0
	작은도서관	23	57.5
	행정기관	1	2.5
직위	관리자	5	12.5
	실무자	35	87.5
독서문화·도서관 정책 관련 경력	3년 미만	4	10.0
	3~5년	10	25.0
	6~9년	8	20.0
	10~15년	13	32.5
	15~20년	3	7.5
	20년 이상	2	5.0
김해시 독서문화·도서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매우 낮음	-	-
	낮음	1	2.5
	보통	24	60.0
	높음	12	30.0
	매우 높음	3	7.5
전문분야	도서관 운영	23	57.5
	독서문화 프로그램	12	30.0
	독서교육	2	5.0
	지역서점·출판	-	-
	문화정책	1	2.5
	행정·거버넌스	2	5.0
	기타	-	-

5) 정책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 AHP 분석 결과,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가 0.3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0.269,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0.227,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기반 강화’ 0.190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 확대보다 생활권에서 독서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이 우선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추진체계와 지속가능성이 2순위로 나타나, 생활권 독서환경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인력·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중요하게 평가됨
-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도 비교적 높은 중요도를 보여 기존 도서관의 공간과 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기반 강화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는 중요성이 낮다기보다 인프라·추진체계·서비스 기반을 우선 정비할 필요성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27> 정책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순위	정책영역	중요도
1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0.313
2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0.269
3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0.227
4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기반 강화	0.190

6) 영역별 세부과제 중요도

□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기반 강화

- ‘생애주기별·대상별 책문화 콘텐츠 개발’이 0.422로 가장 높았으며, ‘독서 동아리 및 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0.248, ‘대표 독서행사 고도화’ 0.185,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0.145 순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 대표행사의 확대보다 연령·생애단계·이용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강화가 우선적임을 보여줌. 특히 청년·직장인·시니어 등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은 계층을 위한 콘텐츠 보완이 필요함

<표 4-28>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기반 강화 영역 우선순위 중요도 산정결과

순위	세부과제	중요도
1	생애주기별·대상별 새로운 책문화 콘텐츠 개발	0.422
2	독서동아리 및 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0.248
3	김해독서대전·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대표 독서행사 고도화	0.185
4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0.145

□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이 0.330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서취약계층 및 비독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0.239, ‘다양한 정보자원 확충’ 0.220,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0.211 순으로 나타남
- 과제 간 중요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공간 재구성이 1순위로 나타나 도서관을 자료 대출·열람 중심에서 독서·문화·소통·휴식이 결합된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확인됨.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정보자원, 디지털 서비스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4-29>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영역 우선순위 중요도 산정결과

순위	세부과제	중요도
1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0.330
2	독서취약계층 및 비독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	0.239
3	도서·비도서 등 다양한 정보자원 확충	0.220
4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 도서관 서비스 확대	0.211

□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이 0.477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0.224, ‘스마트·야외도서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0.161,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생활권 독서활동 지원’ 0.138 순으로 나타남

- 작은도서관 관련 과제가 다른 과제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 향후에는 시설 확충보다 운영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평가됨. 즉, 기존 생활권 독서자원의 실질적인 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방향이 중요함

<표 4-30> 생활권 독성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영역 우선순위 중요도 산정결과

순위	세부과제	중요도
1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0.477
2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0.224
3	스마트·야외도서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0.161
4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생활권 독서활동 지원	0.138

□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가 0.428로 가장 높았으며,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0.243, ‘민관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0.240,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0.089 순으로 나타남
-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강화가 1순위로 나타난 것은 확대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정책기반 강화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임. 또한 브랜드 확산과 민관협력도 높은 중요도를 보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지역서점·시민조직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표 4-31>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영역 우선순위 중요도 산정결과

순위	세부과제	중요도
1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	0.428
2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0.243
3	민관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0.240
4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0.089

7) 세부과제 종합 우선순위

- 종합 중요도는 제1계층 정책영역 중요도와 제2계층 세부과제 중요도를 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16개 세부과제의 전체 우선순위를 도출함
- 분석 결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이 0.149로 1순위로 나타남
 - 다음으로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 0.115, ‘생애주기별·대상별 책문화 콘텐츠 개발’ 0.080,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0.075,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0.070 순임
- 상위 5개 과제는 생활권 인프라 2개, 추진체계 1개, 시민 독서문화 1개, 도서관 서비스·공간 1개로 구성됨
 - 이는 생활권 서비스 기반을 우선 강화하면서 조직·인력, 콘텐츠, 공간을 함께 개선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 특히 1순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5순위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가 모두 생활권 인프라 영역에 포함되어, 전문가들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독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2순위 전담조직·전문인력 강화는 정책 추진의 행정적 기반에 해당하며, 3순위 생애주기별·대상별 콘텐츠 개발과 4순위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은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연계되는 과제임
- 다만 AHP는 전문가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이므로, 최종 전략과 실행과제는 시민조사, 생활권별 이용격차,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행·재정적 실행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4-32> AHP 세부과제 종합 우선순위

종합순위	세부과제	종합 중요도
1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0.149
2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	0.115
3	생애주기별·대상별 새로운 책문화 콘텐츠 개발	0.080
4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0.075
5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0.070

3 | 조사분석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시민조사와 전문가 AHP를 종합하면 향후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생활권 독서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격차 개선으로 나타남
 - 시민조사에서 도서관 이용률은 서부권 90.0%, 동부권 46.7%로 43.3%p 차이를 보였으며, 동부권의 접근성 만족도도 3.31점으로 가장 낮았음
 - 전문가 AHP에서도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가 0.313으로 4개 정책영역 중 1순위로 나타남
-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가 핵심과제로 도출됨
 - AHP 종합순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이 0.149로 전체 16개 과제 중 1순위,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가 0.070으로 5순위를 차지함
 - 신규시설의 일률적 확대보다 기존 생활권 독서자원의 운영역량을 높이고 서비스 취약지역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함
- 북부권과 동부권은 서비스 접근성과 정책 인지도를 함께 개선해야 할 우선지역으로 나타남
 - 「책 읽는 도시 김해」 인지율은 북부권 55.6%, 동부권 60.0%로 상대적으로 낮고 도서관 이용률과 접근성 만족도도 낮게 나타남
 - 스마트도서관·생활권 독서점점 확대와 함께 권역별 프로그램 배치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성별·세대별 참여격차에 대응한 맞춤형 콘텐츠도 중요함
 - 여성의 도서관 이용률은 83.6%, 독서문화사업 참여율은 35.5%인 반면 남성은 각각 62.8%, 12.2%로 낮았음
 - 20대 역시 정책 인지율 50.0%, 도서관 이용률 52.8%, 독서문화사업 참여율 2.8%로 취약하게 나타남
 - AHP에서도 ‘생애주기별·대상별 책문화 콘텐츠 개발’이 종합 3순위(0.080)로 나타나 남성·직장인·청년·시니어 등 저참여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 기존 도서관의 공간과 서비스 품질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시민조사에서 도서관 서비스·공간 혁신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AHP에서는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이 종합 4순위(0.075)로 나타남
 - 따라서 자료 대출·열람 기능을 유지하면서 문화·교육·소통·휴식이 결합된 이용자 중심 공간과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들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조직·인력 기반을 중요하게 평가함
 - AHP에서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가 정책영역 2순위(0.269),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가 전체 세부과제 2순위(0.115)로 나타남
 - 향후 사업 확대뿐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도서관·작은도서관·지역서점·시민조직을 연계할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
-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인지도를 실제 참여로 전환하는 정책이 요구됨
 - 정책브랜드 인지도는 75.0%이나 독서문화사업 참여율은 24.0%에 그친 반면,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77.8%로 높게 나타남
 -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보다 세대별 홍보, 생활권 분산 개최, 야간·주말 운영, 관심사 기반 콘텐츠 등을 통해 기존 우수사업의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
- 향후 정책은 ‘생활권 접근성 강화, 기존 서비스의 질적 혁신, 대상별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구축’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이 체감하는 이용격차와 전문가가 판단한 정책 우선순위가 생활권 인프라, 작은도서관, 맞춤형 콘텐츠, 조직·인력 강화에서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중장기 발전전략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V

「책 읽는 도시 김해」 중장기 발전전략

1 | 전략체계 구성 및 전략수립 기본방향

1) 전략체계 구성

- 「책 읽는 도시 김해」 중장기 발전전략은 시민조사, 전문가 분석, 정책환경 변화,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종합하여 4대 전략과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함
- 시민과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한 과제를 우선 반영하되, 독서 인프라 확충에서 서비스 혁신, 시민 참여, 정책 추진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함
- 전략 1 ‘생활권 독서 인프라·접근성 강화’는 시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과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임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권역별 공공도서관 서비스망 강화, 스마트·야외 도서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지역서점·문화공간과의 연계를 주요 과제로 설정함
- 전략 2 ‘도서관 서비스·공간 혁신’은 기존 도서관의 양적 확충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략임
 - 장서와 정보자원의 확충, 이용자 중심의 공간 혁신, 디지털·스마트 서비스 확대,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통해 변화하는 독서환경과 이용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전략 3 ‘시민 독서문화 확산·참여 기반 강화’는 시민을 독서정책의 수혜자에서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주체로 확장하는 전략임
 -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동아리와 시민 독서활동, 「김해시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김해의 대표 독서문화 사업을 연계·고도화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전략 4 ‘추진체계·지속가능성 강화’는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넘어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책 전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전략임

-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강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통계·성과관리 체계화, 책읽는도시 브랜드 고도화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 5-1> 전략체계와 세부과제 총괄

전략	세부과제	AHP 순위
전략 1. 생활권 독서 인프라·접근성 강화	1-1.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지원체계 개선	1위
	1-2.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5위
	1-3. 스마트·야외도서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9위
	1-4.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생활권 독서활동 지원	13위
전략 2. 도서관 서비스·공간 혁신	2-1.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4위
	2-2. 도서·비도서 등 정보자원 확충	10위
	2-3.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11위
	2-4. 독서취약계층·비독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8위
전략 3. 시민 독서문화 확산·참여 기반 강화	3-1. 생애주기별·대상별 책문화 콘텐츠 개발	3위
	3-2. 독서동아리·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12위
	3-3.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15위
	3-4.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날기 전국대회 등 대표행사 고도화	14위
전략 4. 추진체계·지속가능성 강화	4-1.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전문인력 강화	2위
	4-2. 민관협력 거버넌스·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7위
	4-3.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16위
	4-4.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대외협력 강화	6위

2) 전략수립 기본방향

- 전략 수립의 첫 번째 원칙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시민 독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와 전문가 분석 결과를 세부과제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함. 특히 시민과 전문가의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생활권 독서 접근성,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서비스 개선 등을 핵심 전략에 우선적으로 반영함
- 두 번째는 국가 독서·도서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임.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강조하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 생활권 중심 서비스, 디지털 독서환경, 포용적 도서관서비스, 지역 독서생태계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정책 및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세 번째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김해의 독서정책 자산을 고도화하는 것임. 새로운 사업을 단순히 추가하기보다 「김해시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작은도서관, 책두레 등 기존의 대표사업과 독서 인프라를 재구조화하고 상호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둠. 특히 2027년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20주년을 기존 정책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함
- 네 번째는 시민의 일상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임.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공원·광장, 생활권 공공시설, 디지털 환경 등 시민의 일상 동선 전반으로 독서접점을 확장함. 이를 통해 독서를 특정 장소나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함
- 다섯 번째는 실행과 성과관리가 가능한 전략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16개 세부과제별로 추진주체와 추진시기, 주요 사업내용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로드맵과 연계함. 중장기 전략이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매년 수립되는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과 예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연차별 실행계획-성과관리’가 연계되는 실행체계를 구축함

시민조사	시민조사
- 강화 공간 1위: 작은도서관 - 집중개선: 프로그램 질·장서 다양성 - 참여 결정요인: 정책 인지도 - 이용 격차: 자녀 유무·거주권역	- 영역1위: 생활권 인프라 - 과제1위: 작은도서관 활성화 - 과제2위: 전담조직·전문인력 - 과제3위: 생애주기 콘텐츠



전략 수립의 공통 근거
생활권 기반 우선 · 사람(전문인력)과 콘텐츠 강화
홍보·정보체계는 전 사업 공통 기반



중장기 발전전략
4대 전략·16개 세부과제·단계별 로드맵

(그림 5-1) 조사·진단 결과와 전략의 연계 구조

2 | 비전과 목표

1) 비전

- 비전은 ‘시민의 일상에서 완성되는 책 읽는 도시 김해’로 설정함. 지난 20년이 도시 차원의 선언과 기반 구축의 시기였다면, 다음 10년은 그 기반이 시민 개개인의 일상적 독서 경험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임
- 비전의 핵심어인 일상은 생활권 접근성, 모든 연령, 매체(종이책과 디지털)의 세 차원을 포괄하며, 완성은 행사와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행동 변화를 정책의 최종 성과로 본다는 의미임

2) 목표

- 2035년까지의 목표는 세 가지로 설정함
 - 생활권 10분 독서환경 조성
 - 시민 독서율과 사업 참여율의 단계적 제고
 -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조직·인력·통계·거버넌스) 완성



(그림 5-2) 비전·목표와 전략체계

3 | 전략 1: 생활권 독서 인프라·접근성 강화

- 시민이 거주지역이나 이동여건에 관계없이 생활 가까이에서 책과 독서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임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문화시설, 야외공간을 하나의 생활권 독서서비스망으로 연계하고 권역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둠
-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지역서점·문화공간의 독서거점화를 추진함

1)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 배경 및 목적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AHP 분석 결과 종합 중요도 0.1494로 16개 세부과제 중 1순위로 나타난 최우선 과제임
- 김해시는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이후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해 생활권 독서 인프라를 확대해 왔으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민과 가까운 생활밀착형 독서공간으로 자리 잡음
- 그러나 사립 중심의 운영구조와 운영비 지원 여부에 따라 시설별 운영역량과 서비스 수준에 편차가 있어 운영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확인됨
- 향후에는 운영성과, 공공성, 서비스 수준을 반영한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생활권 독서서비스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운영평가 연계 단계별·차등 지원체계 구축
 - 운영평가 결과를 운영비·장서구입비·프로그램 지원 등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의 객관성을 강화함
 - 평가 참여, 개관시간, 대출, 장서 확충, 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역사회 협력 등을 종합한 지원기준을 마련함
 - 우수 도서관에는 장서·프로그램·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 도서관에는 컨설팅과 개선기회를 제공함

- 운영 취약 작은도서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 운영평가 하위시설을 대상으로 장서관리, 프로그램, 회계·행정, 홍보 등 취약 분야별 컨설팅을 실시함
 - 우수 도서관과 취약 도서관 간 멘토-멘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사례와 프로그램을 공유함
 - 평가 미참여 도서관도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 정상화 지원 또는 기능 조정을 검토함
- 운영 전문성 및 주민참여 강화
 - 운영자·실무자 대상 장서관리, 프로그램 기획, 회계·행정, 이용자 서비스,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정례화함
 - 주민, 독서동아리, 퇴직자, 대학생 등을 독서활동가·자원활동가로 양성하여 운영 인력을 보완함
 - 장기적으로 공공성·주민참여 수준에 따라 공립 전환,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서비스 거점화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함

2)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 배경 및 목적

- 공공도서관은 장서·정보 제공과 독서문화, 평생학습, 문화활동,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는 독서정책의 핵심 기반임
- 김해시는 권역별 공공도서관 공급과 여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동부권은 칠암도서관의 서비스 범위가 상동·대동까지 넓어 실질적 접근성 보완이 필요함
- 시민조사에서도 권역별 이용격차가 확인된 만큼 개별 도서관 운영을 넘어 김해시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 서비스망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권역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생활권 특성과 도서관 규모·기능을 고려하여 권역별 거점 및 특성화 기능을 설정함
 - 북부권은 진영한빛·진영·화정글샘도서관을 기반으로 한림·생림 등 읍·면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함

- 서부권은 장유도서관의 거점기능과 율하·기적·어린이영어도서관의 특성화 기능을 연계함
- 중부권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과 원도심 작은도서관·문화공간 간 연계를 강화함
- 동부권은 칠암도서관을 거점으로 상동·대동 등에 스마트도서관, 순회서비스, 작은도서관을 연계함

○ 시립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 협력 강화

- 장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설 및 주요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사업 중복을 줄이고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함
- 공동 독서행사, 프로그램 교차홍보, 공동 큐레이션, 독서정보 공유 등 시민 체감형 협력사업을 확대함
- 운영주체가 다른 도서관도 시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생활권 서비스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함

○ 생활권 분석에 기반한 신규 공급 검토

- 인구수만으로 신규 도서관 건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인구증감, 연령구조, 신규 주거개발, 대중교통, 기존 공공·작은도서관 서비스권, 책두레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대형 공공도서관 건립과 함께 소규모 분관, 복합문화시설 내 독서공간, 스마트도서관, 작은도서관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검토함

3) 스마트·야외도서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 배경 및 목적

- 공공도서관 건립만으로 모든 읍·면·동에 동일한 수준의 독서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에는 재정적·공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이 실제 생활하는 장소로 독서서비스를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함
- 시민조사에서도 공원·야외공간과 행정복지센터·체육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독서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어, ‘도서관에 시민이 찾아가는 방식’과 함께 ‘시민에게 도서관 서비스가 찾아가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스마트도서관, 순회문고, 생활시설 북코너, 야외도서관 및 찾아가는 대출서비스를 통해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생활권의 독서접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순회문고 및 생활시설 북코너 확대
 - 스마트도서관 설치수요가 낮거나 인구가 분산된 지역은 일정 주기로 도서를 교체하는 순회문고를 운영함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체육시설, 복지관 등 시민의 일상 이용이 많은 시설에 소규모 책문화공간을 조성함
 - 시설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어린이·시니어·건강·생활정보 등 특화 장서를 구성함
- 야외도서관 정례화 및 권역 확대
 - 공원과 광장에 계절형 야외도서관을 운영하고 가족 독서소풍, 낭독회, 그림책 체험, 책교환, 소규모 공연 등을 결합함
 - 독서대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봄·가을을 중심으로 권역별 순회형 야외도서관을 운영하여 생활권 단위의 상시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 2024년 김해독서대전의 모산공원 야외도서관은 25개 프로그램에 약 8,000명이 참여하였고, 야간 야외도서관 역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높은 호응을 얻어 김해형 생활밀착 독서공간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확인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5-3) 지역을 반영한 야외도서관 사례

○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도입

- 고령자, 장애인, 교통취약지역 주민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택배대출, 단체대출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함
- 상호대차(책두레) 서비스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신청한 후 가까운 공공시설이나 지정된 생활권 서비스 거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함

○ 서비스 공백지역 스마트도서관 시범 설치

-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부권을 우선 검토지역으로 설정하고 행정복지센터, 교통거점, 생활편의시설 등 유동인구와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함
- 설치 전 인구, 이동동선, 대중교통, 주변 도서관, 예상 이용수요 등을 분석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함
-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시설의 관리방식과 장서회전, 이용자 서비스를 표준화함

4)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생활권 독서활동 지원

■ 배경 및 목적

- 지역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유통공간인 동시에 작가·독자·지역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지역 책문화 생태계의 주요 기반임
- 김해시는 2025년 「작가와 서점 나들이」를 지역서점 3개소에서 총 4회 운영하여 시민 10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서점이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독서문화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확인함
-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의 참여 서점과 사업규모가 제한적이고, 서점별 운영 역량에도 차이가 있어 문화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체계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북페이백, 공공기관 도서구매, 서점 문화프로그램,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연계를 통합하여 ‘도서관 밖 생활권 책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김해형 북페이백 안정화 및 고도화

- 북페이백 이용실적과 시민수요, 지역서점의 참여성과를 분석하여 지원 도서와 참여서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단순한 도서구매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북페이백 반납도서의 공공장서 활용, 이용자 후속 독서프로그램 및 지역서점 방문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함
- 장기적으로는 도서관, 서점, 시민을 연결하는 김해형 생활권 도서순환 모델로 발전시킴

○ 지역서점 문화거점 기능 강화

- 「작가와 서점 나들이」를 작가강연 중심에서 북토크, 독서모임, 글쓰기, 독립출판, 큐레이션, 지역작가 전시 등으로 다양화함
- 동일한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운영실적, 프로그램의 차별성, 공간의 적합성, 권역별 분포 등을 고려한 공모방식으로 지원함
- 실질적인 영업 여부와 문화공간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네책방 선정·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함. 김해시는 2025년 기준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영업, 도서판매 실적 및 입고내역 등 실제 영업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 도서관·서점·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전당 등의 전시·공연과 연계한 북 큐레이션을 추진함
- 공연 원작 함께 읽기, 전시 주제 북큐레이션, 역사문화자원과 책을 결합한 북투어 등 김해의 문화콘텐츠와 독서를 연계함
- 김해독서대전, 올해의 책, 지역서점 사업을 연중 연계하여 개별 행사 중심에서 지역 책문화 생태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함

○ 지역서점 우선구매 및 지역 내 도서유통 기반 강화

- 공공기관의 지역서점 우선구매 원칙을 지속하여 지역 내 도서유통 기반을 유지함
-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 공공기관 구매, 북페이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서점의 경제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동시에 지원함

4 | 전략 2: 도서관 서비스·공간 혁신

- 도서관 서비스·공간 혁신은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충을 넘어 공간, 장서·정보자원, 디지털 서비스, 포용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머물고 이용하고 참여하는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전략임
- 시민조사에서 도서관 이용 시 아쉬운 점은 ‘신간도서 부족’ 31.4%, ‘도서·자료 부족’ 23.6%로 장서 관련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휴식·커뮤니티 공간 부족’ 15.0%, ‘공간 노후·불편’ 14.1%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나타남. 서비스 만족도 역시 ‘도서자료 다양성’ 3.68점, ‘디지털 서비스’ 3.5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이에 따라 이용자 중심 공간 재구성, 정보자원 고도화, 디지털·스마트 서비스 혁신, 독서취약계층·비독자 대상 포용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1)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 배경 및 목적

-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은 AHP 종합 중요도 0.0749로 16개 세부과제 중 4순위에 해당하는 핵심과제임
 - 공공도서관을 자료 열람·대출 중심에서 독서·문화·학습·교류·휴식이 결합된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시민조사에서도 ‘휴식·커뮤니티 공간 부족’ 15.0%, ‘공간 노후·불편’ 14.1%가 주요 개선사항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체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
- 특히 개관 후 장기간이 경과한 도서관은 시설보수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구성과 이용행태 변화, 동선, 세대별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도서관별 공간기능 진단 및 단계적 개선
 - 시설 노후도, 이용자 구성, 공간별 이용률, 자료실 배치, 이용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도서관별 단계적 개선계획을 수립함

-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칠암도서관은 재개관 이후 이용행태, 공간 활용도, 만족도를 점검하여 향후 시립도서관 공간개선의 참고사례로 활용함
- 개관연도뿐 아니라 안전성, 이용수요, 공간 활용도, 특성화 기능 등을 종합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함
- 열람 중심에서 체류·활동 중심 공간으로 다변화
 - 개방형 독서라운지, 소규모 모임공간, 독서동아리실, 가족 독서공간, 전시·창작공간 등을 확대함
 - 조용한 독서공간과 대화·활동공간을 구분하여 이용목적 간 충돌을 최소화함
 - 복도·계단·로비 등 유휴·이동공간도 독서·전시·휴식공간으로 활용함
- 생애주기·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특화공간 조성
 - 어린이·가족은 가족형 독서공간, 청소년·청년은 진로·미디어·창작·프로젝트 공간을 강화함
 - 중장년·시니어를 위해 큰글자자료, 편안한 독서가구, 낮은 서가, 디지털 이용지원 등을 결합함
 -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출입·이동·자료접근·안내체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함
- 문화시설 연계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 김해책문화센터,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박물관, 미술관, 김해문화의전당 등과 연계하여 책·전시·공연·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함
 - 유사시설과 장비의 중복 설치를 줄이고 시설 간 공동활용과 콘텐츠 연계를 강화함
- 이용자 참여형 공간관리체계 도입
 - 공간개선 과정에서 설문, 관찰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반영함
 - 개선 이후 이용률, 체류시간,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분석하여 활용도가 낮은 공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함

2) 도서·비도서 등 정보자원 확충

□ 배경 및 목적

- 도서·비도서 등 정보자원 확충은 AHP 분석에서 16개 세부과제 중 10순위로, 시민의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을 뒷받침하는 기본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임
- 시민조사에서 ‘신간도서 부족’ 31.4%, ‘도서·자료 부족’ 23.6%가 가장 큰 불편으로 나타났으며, IPA분석에서도 ‘도서자료의 다양성’은 중요도가 높고 만족도는 3.68점으로 낮아 집중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단순한 장서량 확대보다 신속성·다양성·지역성·디지털성을 갖춘 이용자 중심 정보자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이용데이터 기반 장서개발체계 강화
 - 도서관별 대출·예약·희망도서·연령별 이용·미대출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장서구성에 반영함
 - 신간과 예약집중 도서의 구입주기를 단축하고 수요가 높은 분야의 복본 확보 기준을 마련함
 - 장기간 미이용 자료는 보존·이관·폐기 기준을 적용하여 장서의 최신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임
- 신간·희망도서 신속 공급체계 구축
 - 정기구입과 희망도서 구입을 병행하고 신간도서가 시민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함
 - 북페이백 도서는 이용수요와 복본현황을 고려하여 공공장서로 효율적으로 활용함
 - 북페이백 확대 자체는 전략 1에서 다루고, 본 과제에서는 시민 수요가 확인된 자료의 신속한 장서화 수단으로 활용함
- 김해 지역기록 아카이브 구축 강화
 - 장유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 기록·향토자료 축적 기능을 시립도서관 전체의 지역자료 정책으로 확대함

- 읍·면·동별 역사, 인물, 생활문화, 산업, 마을기록, 사진, 지역간행물, 연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함
- 수집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지역학 강좌, 전시, 구술기록, 시민기록단, 학교 교육자료 등에 활용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5-4) 장유도서관 지역특화 도서자료

○ 디지털·비도서 정보자원의 균형적 확충

-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학술논문, 온라인 DB 등 디지털 자원의 이용 실적을 분석하여 수요 중심으로 확충함
- 자체 구독과 광역단위 공동이용 서비스를 구분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함
- 오디오북, 큰글자자료, 읽기 쉬운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도 장서정책에 포함함

3)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 배경 및 목적

-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는 AHP 분석에서 16개 세부과제 중 11순위로, 변화하는 독서매체와 정보이용 방식에 대응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과제임
- 시민조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만족도’는 3.57점으로 도서관 서비스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자책·오디오북·디지털 콘텐츠 확대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인됨

- 김해시는 이미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플랫폼의 추가 구축보다 기존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용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주요 사업내용

- 김해통합도서관 누리집·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도서검색, 예약, 상호대차, 대출현황, 프로그램 신청, 전자자료 안내 등을 하나의 이용흐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모바일 알림, 예약·상호대차 처리상태 확인, 수령도서관 선택 등 시민 체감형 기능을 강화함
 - 신규 앱 구축보다 기존 김해통합도서관 누리집 시스템과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 시민 디지털 문해력·AI 활용 역량 강화
 - 스마트폰, 전자책·오디오북, 정보검색 등 기초과정부터 생성형 AI 활용, 정보검증, 허위정보 판별,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까지 단계별 교육을 운영함
 - 청소년·청년은 AI·창작·미디어 활용, 중장년·고령층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활용 중심으로 차별화함
-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 서비스 도입
 - 예약자료 무인수령, 모바일 회원증, 이용상태 안내, 좌석·시설 이용 등 반복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함
 - AI 기반 책 추천과 큐레이션은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고려하여 보조적으로 활용함
 - 기술 도입 자체보다 이용시간 절감, 접근성 향상 등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함
-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병행서비스
 -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안내와 현장교육을 지속함
 - 모바일·무인서비스는 대면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이용격차 발생을 방지함

4) 독서취약계층·비독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배경 및 목적

- 독서취약계층·비독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는 AHP 분석에서 16개 세부과제 중 8순위로, 연령·장애·언어·이동여건·독서경험 등에 따른 독서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임
- 시민조사에서 도서관 개선방향 1순위 응답 중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는 14.7%로 나타났으며, 1~3순위 종합에서도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8.1%, ‘중장년·노년층 프로그램 확대’ 8.8%로 확인됨
- 기존 독자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만으로는 전체 독서 참여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독자가 자신의 관심사에서 쉽게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장애인·고령층 독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 큰글자도서, 점자도서, 오디오북, 읽기 쉬운 자료, 음성지원 전자자료 등 다양한 대체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함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보조기기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직원 안내체계를 강화함
 - ‘올해의 책 점자도서 제작·보급’을 개별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전체의 독서 배리어프리 정책과 연계함
 - 2024년에는 올해의 책 대표도서 점자도서 100세트를 제작하여 관내 공공도서관·유관기관 및 전국 장애인도서관 등에 배포한 바 있음
- 고령층·이동취약계층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과 연계하여 순회문고, 단체대출, 찾아가는 낭독, 책배달 등을 추진함
 - 시니어의 건강, 역사, 여행, 글쓰기, 회고, 생활정보, 디지털 활용 등 실제 관심사를 독서와 연결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생활권 내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을 독서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활용함

○ 다문화·외국인 주민 대상 다언어 독서서비스

- 김해지역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언어구성을 고려하여 주요 언어별 일반도서와 어린이자료를 단계적으로 확충함
- 이중언어 그림책 읽기, 부모·자녀 공동독서, 세계문화 그림책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의 참여형 사업을 운영함
- 다문화가족지원기관, 학교,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프로그램 참여까지 연결함

○ 비독자 대상 ‘낮은 문턱의 읽기’ 프로그램 운영

- 처음부터 한 권을 완독하거나 독후감을 작성하는 방식보다 짧은 글, 그림책, 만화, 잡지, 오디오북, 낭독 등 부담이 적은 콘텐츠부터 시작하도록 함
- 영화·드라마·음악·여행·스포츠·음식·반려동물 등 시민의 관심주제를 책과 연결하는 큐레이션과 프로그램을 개발함
- 영화 보고 원작 한 부분 읽기, 10분 낭독, 한 문장 읽기, 취향별 책 처방 등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춘 프로그램을 운영함

5 | 전략 3: 시민 독서문화 확산·참여 기반 강화

- 시민 독서문화 확산·참여 기반 강화는 행정과 도서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에서 나아가 시민이 생애단계와 관심에 따라 독서활동에 참여하고, 독서공동체와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임
- 시민조사에서 ‘글쓰기·창작 프로그램’ 수요가 36.0%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 문해력·AI 활용 프로그램’도 23.0%로 나타나 강연·관람 중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김해시는 북스타트, 올해의 책, 독서동아리,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 읽기 전국대회 등 장기간 축적된 독서문화사업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신규사업을 개별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생애주기별 콘텐츠, 시민 독서공동체, 사회적 읽기와 창작활동으로 연결하는 재구조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생애주기·대상별 책문화 콘텐츠 확대, 독서동아리와 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김해독서대전·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대표 독서행사의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1) 생애주기별·대상별 책문화 콘텐츠 개발

▣ 배경 및 목적

- 생애주기별·대상별 책문화 콘텐츠 개발은 AHP 종합 중요도 0.0804로 16개 세부과제 중 3순위이며, 시민 독서문화 확산·참여 기반 강화 영역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함
- 시민 희망 프로그램은 ‘글쓰기·창작’ 36.0%, ‘디지털 문해력·AI 활용’ 23.0%로 나타나, 작가 강연이나 독서교육 중심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표현·창작하는 콘텐츠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령과 생애단계에 따라 도서관 이용과 프로그램 수요가 다른 만큼,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직장인·중장년·시니어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형 독서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북스타트 등 기존 사업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해 온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개별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보다 생애주기별 사업을 체계화하고 대상별 수요에 맞는 참여·창작형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김해 생애주기 책문화 프로그램 체계 구축 강화
 - 도서관별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로 재분류하여 중복·편중 영역과 서비스 공백을 파악함
 - 영유아는 북스타트·부모교육, 학령기는 독서습관·표현활동, 청소년은 진로·토론·창작, 청년·직장인은 진로·관계·경제·취향독서, 중장년은 인문·생활독서·글쓰기, 시니어는 회고·건강·디지털·세대교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
 - 연령별 프로그램을 단발사업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의 연속적인 독서정책 체계로 관리함
- 마음건강 독서지원 시범사업 추진
 - 독서와 글쓰기를 활용하여 일상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기돌봄을 지원하는 비의료적·예방적 독서복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
 - 청소년의 스트레스·관계, 청년·직장인의 번아웃·고립, 중장년의 생애전환, 시니어의 상실·회고, 돌봄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제를 세분화함
 - 도서관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협력하여 추천자료와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도록 함
 - 도서관에는 대상별 마음건강 북큐레이션과 독서키트를 제공하고, 낭독·글쓰기·집단독서·전문가 강연 등을 연계함
- 청년·직장인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상대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청년과 직장인을 위해 평일 야간, 주말 및 온·오프라인 혼합 프로그램을 확대함
 - 직장생활, 진로전환, 재테크, 관계, 여행, 글쓰기, 취향, AI 활용 등 실제 생활 관심사에서 책으로 연결되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함
 - 1회형·퇴근길 프로그램, 30~60분 단기 독서모임 등 다양한 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시간부담을 낮춤

- 2025년 김해독서대전에서 운영한 독립출판·글쓰기 등 성인 대상 콘텐츠를 연중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확장함

○ 시민 디지털 창작·미디어 콘텐츠 강화

- 생성형 AI 활용, 디지털 글쓰기, 전자책 제작, 팟캐스트, 북트레일러, 숏폼 북리뷰 등 디지털 기술과 독서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청소년·청년은 디지털 창작, 중장년·시니어는 생활형 AI와 정보활용 중심으로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술교육에 그치지 않고 읽기, 정보탐색, 창작, 공유가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결과물을 책·전시·발표회 등으로 공유하여 시민의 창작 참여를 확대함

2) 독서동아리·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 배경 및 목적

- 독서동아리와 시민 독서활동은 개인의 독서를 타인과의 대화와 관계,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하고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임
- 시민조사에서 ‘독서공동체 활동’ 경험률은 9.3%에 그쳐 시민 개인의 독서 경험에 비해 함께 읽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 기반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행정 주도의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시민이 스스로 독서모임을 만들고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시민주도형 독서공동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독서동아리 등록·정보관리체계 구축
 - 공공·작은도서관, 직장, 공동주택, 서점,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함
 - 시민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등록하고 활동분야, 대상, 지역, 회원모집 여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등록 동아리에는 모임공간, 토론도서, 프로그램 정보, 공동행사 참여 등 기본 지원을 제공함

○ 성장단계별 독서동아리 지원

- 신규 동아리에는 공간, 주제도서, 활동자료, 진행자 등을 지원하여 초기 정착을 도움
- 지속 활동 동아리에는 도서구입비·활동비, 외부강사, 자체 기획사업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함
- 우수 동아리는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시민 독서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활동의 성장경로를 마련함

○ 독서토론리더·독서활동가 양성

- 도서선정, 질문 만들기, 발제, 비경쟁 토론, 갈등조정, 기록, 동아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시민 독서활동가를 양성함
- 수료자는 작은도서관과 신규 동아리, 지역 복지·교육기관 등에 연계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올해의 책과 독서대전 등 주요 사업의 시민 진행자로 참여하도록 함

○ 생활공간 기반 찾아가는 독서동아리 육성

- 공동주택, 기업·사업장, 복지시설, 카페, 지역서점 등 시민의 생활공간에서 독서모임이 형성되도록 지원함
- 직장인은 점심·퇴근시간, 공동주택은 야간·주말 등 대상별 생활시간을 반영함
- 초기 3~6개월간 도서와 진행자를 지원하고 이후 자생적 모임으로 전환하도록 함

○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및 시민기획 확대

- 동아리 간 활동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독서동아리 교류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추천도서, 토론주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
- 우수 동아리가 올해의 책 시민토론, 김해독서대전, 야외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함

3)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 배경 및 목적

- 「김해시 올해의 책」은 2007년부터 운영해 온 대표적인 ‘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으로, 시민이 같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지역사회의 공감과 소통을 형성하는 사업임
- 2026년에는 대표·청소년·어린이·시민작가도서 등 4개 부문을 선정하고, 시민투표를 거쳐 작가와의 만남, 독서릴레이, 토론리더 파견, 가족극, 독후감 공모 등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독서문화사업 참여자 가운데 올해의 책 참여 비율은 38.9%로 비교적 높으나, 시민 전체의 사회적 읽기와 토론·창작 참여는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도서선정과 배포 중심에서 벗어나 선정도서를 매개로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창작으로 이어지는 참여형 사업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선정 중심에서 함께 읽기 중심으로 전환
 - 선정도서 발표 이후 연중 시민토론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읽고 논의되는 구조를 마련함
 - 공공·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공동주택, 직장, 복지시설 등에 토론리더와 대상별 활동자료를 지원함
 - 단순 독후감보다 책의 쟁점과 시민의 삶·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질문 중심 토론을 강화함
- 학교·청소년 협력 연계 강화
 - 청소년·어린이 선정도서를 학교 독서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하여 질문지와 독후활동 자료 등을 제공함
 - 학교 단위 독서릴레이, 학급 토론,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 연계 프로그램을 협력사업으로 확대함
 -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의 비경쟁 독서토론 방식을 올해의 책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활용함
- 시민작가 성장사다리 구축

- 시민작가도서 선정을 완성된 책의 선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시민의 창작 역량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확대함
- 글쓰기·창작교육, 원고발굴, 편집·출판 컨설팅, 시민작가도서 후보·선정, 지역서점 유통, 작가강연·독서대전 참여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구축함
- 우수 창작자에게 창작지원, 출판 컨설팅, 지역서점 입점·홍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를 통해 올해의 책 시민작가도서를 김해 시민작가 발굴과 성장의 지역 창작 플랫폼으로 발전시킴

4) 김해독서대전·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대표행사 고도화

▣ 배경 및 목적

- 김해독서대전과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는 장기간 축적된 사업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책 읽는 도시 김해」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독서문화 자산임
- 2025년 김해독서대전은 책 중심의 독립축제로 개최되어 60개 프로그램에 약 8,000명이 참여하였고, 도서관·출판사·지역서점 등 30개 독서공동체가 참여함. 만족 이상 응답도 99.6%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는 전국 청소년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저자와의 대화와 비경쟁 독서토론을 운영해 온 김해의 특화사업으로, 2026년에는 전국 32개 학교에서 160여 명이 참가함
- 향후에는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 수 확대보다 각 사업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행사 전후의 독서활동을 연중 연결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김해독서대전의 책 중심 독립축제 정체성 강화
 - 2025년부터 구축된 책 중심 독립축제의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일반 문화 축제와 차별화함
 - 출판사, 독립출판, 지역서점, 작가, 독서동아리, 시민출판물 등 책의 생산, 유통, 읽기, 창작이 한 공간에서 연결되는 축제로 구성함

-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보다 대표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고 김해만의 지역 독서콘텐츠를 집중 육성함
- 프로그램 수보다는 분야 간 균형, 콘텐츠의 질, 시민참여와 연계효과를 주요 성과기준으로 설정함
- 전국행사와 김해지역 청소년의 연결 확대
 - 전국단위 행사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김해지역 청소년이 비경쟁 독서토론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확대함
 - 본대회 이전에 지역 청소년 독서토론 프로그램과 학교별 예비활동, 지도교사 워크숍 등을 협력 운영함
 -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제도서, 질문, 토론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방함
- 대표행사 기록·아카이브와 교육적 확산
 - 김해통합도서관 누리집 등에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의 주제, 선정도서, 질문, 기록집, 영상 등을 축적함
 - 김해독서대전도 연도별 주제, 프로그램, 시민기획물, 사진·영상·출판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대표사업의 정책자산으로 활용함
- 2027년 ‘책 읽는 도시 김해 20주년’ 전략적 활용
 - 2027년을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지난 2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독서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함
 - 20주년 기념전시, 역대 올해의 책 아카이브, 시민 독서기록 전시, 책읽는 도시·도서관 정책교류 등을 추진함
 - 별도의 대규모 행사를 추가하기보다 김해독서대전, 올해의 책, 독서동아리,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기존 대표사업의 성과를 연결하여 20주년의 의미를 강화함

6 | 전략 4: 추진체계·지속가능성 강화

- 추진체계·지속가능성 강화는 생활권 독서 인프라, 도서관 서비스 혁신, 시민 독서문화 확산 등 앞선 전략이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직·인력, 거버넌스, 성과관리, 브랜드·대외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임
- 「책 읽는 도시 김해」는 2007년 선포 이후 공공·작은도서관,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다양한 정책자산을 축적해 왔음. 사업과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정책기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전문가 AHP에서도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가 종합 중요도 0.115로 16개 세부과제 중 2순위, 추진체계·지속가능성 강화 영역에서는 1순위로 나타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확인됨
- 이에 따라 도서관·독서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인력 강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1)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전문인력 강화

■ 배경 및 목적

-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전문인력 강화는 AHP 종합 중요도 0.1152로 16개 세부과제 중 2순위이며, 추진체계·지속가능성 강화 영역에서는 중요도 0.4276으로 1순위를 차지한 핵심과제임
- 현재 김해시는 교육체육국 체계 아래 시립도서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유·칠암·진영한빛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장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재육성과 책읽는도시팀은 독서문화 진흥시책, 대표사업, 작은도서관·지역서점 정책 등 시 차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정책기획과 현장운영 기능이 분산된 구조임
- 개별 도서관의 자율적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장서·프로그램·인력·디지털서비스·작은도서관 지원 등 시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기준과 생활권별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2007년 선도적으로 독서·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한 경험이 있으며, 2019년 조직진단에서도 도서관정책 기능 강화와 장유도서관의 중앙관 기능이 제안된 바 있음. 현재 장유도서관은 김해시립도서관의 대표도서관이자 중앙관으로서 전문서비스와 협력서비스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 조직 내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김해시 도서관 규모와 정책범위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책읽는도시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 책읽는도시팀이 중장기 전략과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연계하고, 시립도서관 공동사업, 작은도서관·지역서점 정책, 대표사업, 성과관리와 대외 협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개별 도서관은 생활권별 자료·프로그램·이용자서비스와 현장운영에 집중하고, 시 공통 정책과 운영방향은 총괄부서가 조정하는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함
 - 중요 신규사업은 개별 도서관 단위에서 분산 추진하기보다 시범사업, 성과평가, 공통모델 확산의 절차를 거쳐 추진함
- 중장기 조직진단 및 적정 조직모델 검토
 - 도서관 수, 업무량, 정책범위, 생활권 구조 및 향후 신규시설 계획 등을 반영한 후속 조직진단을 실시함
 - 책읽는도시팀 기능·위상 강화, 도서관정책 전담부서, 독립적 사업소, 연관 기능과의 통합조직 등 복수 대안을 비교·검토함
 - 특정 조직형태를 사전에 정하기보다 업무량, 정책조정 필요성, 정원·직급, 행정효율성, 사서직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적정 모델을 결정함
- 직무기반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립
 - 장서·정보서비스, 독서문화 기획, 디지털·AI 서비스, 독서취약계층 지원, 지역자료 아카이빙, 통계분석, 지역사회 협력 등 직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

- 사서직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신규 도서관 설치나 서비스 확대 시 시설계획과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수립함
- 작은도서관·지역 독서활동 현장지원 기능 강화
 - 순회사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장서·운영 컨설팅 등 공공도서관의 전문역량을 작은도서관으로 확산하는 지원기능을 강화함
 -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자 교육, 장서관리, 프로그램 기획, 책 두레와 공동사업 등을 지원함

2) 민관협력 거버넌스·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목적

- 독서문화는 도서관 행정만으로 확산되기 어려우며 작은도서관, 교육기관, 지역서점, 출판·문화단체, 대학, 독서동아리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할 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음
- 현재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등 사업별 협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기간과 목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김해시 독서문화정책 전반과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정책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이러한 한계는 2017년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제기된 바 있으며, 2025년 김해독서대전에 도서관·출판사·지역서점 등 30개 독서공동체가 참여한 사례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콘텐츠와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기존 사업별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정책협의, 실무협력, 생활권 네트워크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김해 독서문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작은도서관, 교육지원청·학교,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대학, 출판·문화단체, 시민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김해 독서문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함
 - 중장기 전략 이행상황, 연도별 중점사업, 기관 간 협력과제와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정책거버넌스로 운영함
 - 기존 사업별 추진협의체는 유지하되 주요 의견과 협력과제가 정책협의회로 연계되도록 역할을 구분함

○ 학교·교육지원청 독서교육 협력 정례화

-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하여 올해의 책, 찾아가는 작가, 청소년 독서토론, 방학 프로그램 등을 연계함
- 학교의 독서교육 수요와 공공도서관의 장서·전문인력·프로그램 자원을 연결함
-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의 비경쟁 토론자료와 운영경험을 지역 학교와 공유함

○ 작은도서관 운영자 네트워크 강화

- 운영자 간 정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강사, 공모사업, 장서관리와 우수 운영사례 등을 공유함
- 운영평가와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된 공통 애로사항을 정책협의회에 전달하여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향식 소통체계를 구축함

○ 대학·전문기관 정책협력 확대 및 공동자원 활용 확대

- 지역 대학과 독서실태조사,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시민활동가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동 추진함
- 대학생 독서활동, 자원봉사, 지역기록,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함
- 기관별 강사·공간·콘텐츠·홍보채널을 공동 활용하고, 올해의 책·독서대전·야외도서관 등 대표사업과 연계함

3)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목적

-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은 AHP 종합순위에서는 16순위로 나타났으나, 직접 서비스에 비해 단기적 시급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장기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관리 기반임
- 현재 방문자, 대출, 장서, 프로그램 참여,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 시설·사업별 통계는 관리되고 있으나, 시민 독서행태와 정책 인지도·참여율, 권역별 이용격차, 정책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통합 성과관리체계는 미흡함

-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과제별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사업 조정에 반영하는 계획, 실행,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나아가 시민의 행동변화와 이용격차 개선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시민조사와 행정통계를 결합한 근거기반 정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4대 전략·16개 과제 성과지표 체계 구축
 - 4대 전략과 16개 세부과제별로 투입, 산출, 성과를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함
 - 예산, 사업횟수와 참여자 수뿐 아니라 독서경험률, 도서관 이용률, 정책 인지도·참여율, 권역별 이용격차, 서비스 만족도, 작은도서관 운영성과 등 정책효과를 함께 관리함
 - 시 차원의 핵심성과지표와 사업별 관리지표를 구분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최소화함
- 시민 독서실태조사 정례화
 - 시민 독서행태와 정책수요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2~3년 주기의 조사를 실시함
 - 2026년 조사의 핵심문항과 권역·연령별 분석기준을 유지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2029년 전후 1차 후속조사를 검토함
 - 독서경험, 도서관 이용, 정책 인지도·참여, 정보접근, 독서공동체, 디지털 독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함
- 공공·작은도서관 통계기준 표준화
 - 이용자, 대출, 장서,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등 주요 통계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통기준으로 관리함
 - 연령, 생활권, 이용시간대, 프로그램 대상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이 낮은 지역과 계층을 파악함
 -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생활권별 자료수요와 서비스 개선에 활용함
- 연도별 시행계획과 중장기전략 연계
 - 매년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사업을 4대 전략·16개 과제와 연계하여 전략적 위치를 명확히 함

- 예산 편성 전 전년도 성과를 점검하여 확대·유지·개선·종료사업을 구분함
- 신규사업은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예상성과를 검토하여 도입함

4)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대외협력 강화

▣ 배경 및 목적

- 「책 읽는 도시 김해」는 2007년 선포 이후 지속된 대표 정책브랜드로, 시민조사에서도 인지도가 75.0%로 나타나 약 20년간 상당한 브랜드 자산이 축적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10~20대의 비인지 비율은 50% 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가 브랜드의 의미와 사업을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함
- 분석결과 정책 인지도는 실제 독서문화사업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이는 신규사업 확대와 함께 기존 사업을 시민이 쉽게 발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체계가 중요함을 보여줌
- 시민이 희망하는 정보 습득경로는 ‘문자·카카오톡’ 48.0%, ‘SNS’ 41.7%로 나타나, 여러 도서관과 사업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시민의 관심과 세대에 맞게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체계가 요구됨
- 따라서 2027년 선포 20주년을 브랜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여 통합 알림, 세대별 콘텐츠, 정책 아카이브와 대외교류를 연계하고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시민의 일상과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독서문화 통합 알림체계 구축
 - 여러 도서관과 사업에 분산된 행사·프로그램 정보를 하나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함
 - 문자·카카오톡 등 선호도가 높은 채널을 활용하여 수신동의 기반의 선택형 알림서비스를 운영함
 - 통합 온라인 캘린더를 통해 시립·작은도서관, 올해의 책, 독서대전, 지역서점 등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관심분야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 대상, 거주권역, 작가강연·글쓰기·AI·가족프로그램 등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내하여 과도한 정보 제공을 줄임
- 홍보 정보에서 신청·예약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인지-관심-신청-참여 과정을 단순화함

○ 청소년·청년 중심의 세대별 콘텐츠 강화

- 10~20대를 대상으로 짧은 영상, 카드뉴스, 참여자 후기, 시민 제작 콘텐츠 등 SNS 환경에 적합한 홍보방식을 강화함
- 독서가 진로·취향·관계·AI·창작 등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함
- 청소년·청년이 서포터즈·시민기자·콘텐츠 제작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 2027년 20주년 브랜드 리프्रेस리 추진

- 선포 20주년을 계기로 지난 정책성과와 새로운 중장기 비전을 시민과 공유함
- BI·슬로건 전면 변경을 전제하기보다 기존 브랜드의 인식과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기존 자산과 미래 비전을 연결하는 리프레스리를 추진함
- 20주년 기념전시, 역대 올해의 책 아카이브, 시민 독서기록, 정책포럼 등을 연계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완성되는 책 읽는 도시’ 비전을 핵심 메시지로 활용함

○ ‘책 읽는 도시 김해’ 디지털 정책 아카이브 구축

- 2007년 이후 정책변화, 공공·작은도서관 성장, 역대 올해의 책, 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시민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함
- 사진·행사기록뿐 아니라 정책자료, 시민 경험, 대표성과와 주요 통계를 함께 제공함
- 20주년 이후에도 매년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김해의 독서문화 정책 자산으로 관리함

VI 결론

1 | 정책적 제언

- 2027년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20주년을 정책 전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 2027년은 김해시가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 20주년으로,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향후 독서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주년을 계기로 시민·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지역서점·대학·문화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정책협의체와 민관 거버넌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전략의 핵심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
 - 특히 작은도서관 지원체계 개선, 통합 정보·알림체계 구축, 생활권 독서서비스 확대 등을 2027년부터 본격화하여 20주년을 ‘제2기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실행 원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년간 축적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올해의 책,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김해독서대전 등의 정책성과를 기록·아카이빙하고 대외적으로 확산하여 독서도시 브랜드를 재정립해야 함
- 도서관·독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함**
 - 시립도서관 확대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생활권 독서서비스, 작은도서관 지원,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등 정책영역이 확대된 만큼 현재의 조직·인력체계가 변화된 정책수요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조직진단에서 도서관정책 총괄기능 강화와 장유도서관의 대표도서관 역할이 제시된 바 있는 만큼, 2027년을 전후하여 업무량, 인력배치, 시립도서관 간 기능분담 등을 포함한 후속 조직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은 특정 조직형태를 사전에 전제하기보다 정책기획·예산·인력·시설·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 확보를 우선해야 함
 - 행·재정 여건에 따라 독립적인 전담조직 또는 연관 기능과 결합한 통합조직 내 전문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장유도서관의 대표 도서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장유·칠암·진영한빛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책·서비스 조정과 권역별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능분담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전략과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연계해야 함

-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계획에 추진사업, 담당부서, 예산, 일정, 성과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신규사업의 도입과 기존사업의 확대·축소·종료 여부를 중장기 전략과 성과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단년도 사업의 반복적 집행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연도별 시행계획-성과평가’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환경과 시민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되 중장기 정책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 정책을 양적 확충에서 운영 내실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전문가 AHP에서 16개 세부과제 중 종합 1순위로 나타났으며, 시민조사에서도 향후 강화가 필요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높은 수요가 확인되어 시민과 전문가의 판단이 일치한 핵심과제임
- 김해시는 총 69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생활권 독서 인프라의 양적 기반은 일정 수준 갖추고 있음. 이 가운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68개소이며, 38개소는 운영비 지원과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생활권 독서서비스망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
- 향후에는 운영평가 결과와 운영 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적절함
 - 우수 도서관에는 장서 확충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 도서관에는 컨설팅·멘토링과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지원 도서관도 평가 참여, 개관시간, 전담인력, 장서, 프로그램 등 최소 서비스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비 지원과 독서서비스 참여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 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평가등급화나 보조금 조정보다 지원 여부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생활권 독서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두어야 함

■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통합 정보·알림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시민조사에서 정책 인지도가 실제 사업 참여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새로운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기존 김해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활용하여 도서관과 독서문화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작은도서관,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지역서점 사업 등의 정보를 통합 캘린더로 제공하고 문자·카카오톡 등을 연계하여 연령과 관심 분야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청소년·청년층에는 SNS 기반의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강화하고, 정보 확인에서 신청·예약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시민 독서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정책 환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독서정책은 시설 수나 프로그램 횟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시민의 독서행태, 도서관 이용, 정책 인지도와 참여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조사체계를 기반으로 2~3년 주기의 시민 독서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독서경험률, 도서관 이용률, 정책 인지도·참여율, 디지털 독서 이용, 권역·연령별 격차 등을 핵심지표로 관리해야 함. 중장기 전략 시행 초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29년 전후 후속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 공공·작은도서관의 방문자, 대출, 책두레, 프로그램 참여, 디지털서비스 이용 등 행정데이터도 함께 축적하여 조사자료와 행정자료가 연계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비 확보와 지역 독서생태계의 외부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함

- 중장기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비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완하고, 국가 도서관·독서문화 정책과 연계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 대학, 지역서점, 출판·문화단체, 복지기관, 민간재단 등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서 지역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협력형 추진체제로 전환해야 함
- 올해의 책,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지역서점 사업 등 기존 민관협력 사업도 개별 행사 단위에서 벗어나 인력·공간·콘텐츠가 연중 연결되는 지역 독서생태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 |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시민조사는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임의표본 방식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 경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한계가 있음. 향후에는 권역·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반영한 층화표본을 적용하고 도서관 비이용자와 비독자를 충분히 포함하여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조사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39명이 도서관 현장 종사자로 출판·지역서점·학교·문화기획 등 인접 분야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음.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를 포함하여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균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김해시가 직접 추진·관리하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직접적인 정책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만 시민의 실제 독서생활을 고려하여 향후 김해시·교육청·학교 간 자료·프로그램·독서교육 연계를 협력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4대 전략과 16개 세부과제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나 사업별 규모, 소요예산, 연차별 재원조달계획까지 구체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계획에서 기존사업 조정, 신규 재정수요, 국·도비 확보, 민관협력 및 민간재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함
- 중장기 전략의 실효성은 지속적인 이행과 성과관리에 달려 있음. 매년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추진실적 점검, 시민 독서실태조사와 도서관 운영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의 확대·조정·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환류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김해시는 지난 20년간 축적한 도서관 인프라와 대표 독서문화사업을 기반으로 시설·행사 중심의 정책을 넘어 시민의 생활권과 생애 전반에서 독서가 이어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 중장기 전략의 지속적인 실행과 점검을 통해 2035년 ‘시민의 일상에서 완성되는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edpolicy/board/31/831239>, 검색일: 2026.07.25.
-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26), 전국 도서관 통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214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20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 김해시(2017), 『책 읽는 도시 김해』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 김해시(2019), 『김해시립도서관 조직진단 및 운영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김해시(2025), 「2025 김해독서대전」 운영 결과 보고
- 김해시(2025), 「2025년 작가와 서점 나들이」 운영 결과보고.
- 김해시(2025), 「2025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최종결과 보고.
- 김해시(2025), 「2026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추진 계획.
- 김해시(2025), 『김해기적의도서관 연구용역보고서』
- 김해시(2025), 공립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2026년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계획.
- 김해시(2026), 김해시 작은도서관 현황
- 김해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246호.
- 김해시,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88호.
-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4),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 문화체육관광부(2026),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 서울도서관, <https://lib.seoul.go.kr/rwww/html/ko/readingPlaza.jsp>, 검색일:2026.07.29.

- 영국 더 리딩 에이전시(The Reading Agency), <https://readingagency.org.uk/get-reading/our-programmes-and-campaigns/national-year-of-reading-2026/>, 검색일 2026.08.14.
- 영국 라이브러리온(libraryon), https://libraryon.org/events?tags=national-year-of-reading?utm_source=website&utm_medium=tra&utm_campaign=nyr&utm_content=events, 검색일 2026.08.14.
- 일본 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a_menu/sports/dokusyo/heurei/cont_001/002, 검색일 2026.08.14.
- 전주도서관 https://lib.jeonju.go.kr/index.jeonju?menuCd=DOM_000000104006001000, 검색일 2026.07.29.
- 클레르몽페랑 교육청(Acad mie de Clermont-Ferrand), <https://www.ac-clermont.fr/10marsjedis-quart-d-heure-de-lecture-national-129028>, 검색일: 2026.08.14.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프랑스 독서교육 정책 및 학교도서관 연계 현황」.

NO

김해시 독서문화 정책수요 및 도서관 이용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와 김해연구원은 「책 읽는 도시 김해」 독서문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김해시민의 도서관 이용 경험, 독서문화 활동 참여 현황, 정책 인식과 향후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김해시민의 독서량을 단순히 측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앞으로 김해시가 어떤 독서문화 정책과 도서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수요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정책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재)김해연구원 연구기획실(055-344-7730)

□ 수행기관: (주)다온이앤알(055-325-9888)

I. 응답자 기본사항

SQ1. 귀하께서는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종료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⑧ 80대 이상

SQ4.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장유1동 ② 장유2동 ③ 장유3동 ④ 동상동 ⑤ 회현동 ⑥ 부원동 ⑦ 내외동
⑧ 북부동 ⑨ 칠산서부동 ⑩ 활천동 ⑪ 삼안동 ⑫ 불암동 ⑬ 진영읍 ⑭ 주촌면
⑮ 진례면 ⑯ 한림면 ⑰ 생림면 ⑱ 상동면 ⑲ 대동면

SQ5. 귀하의 현재 주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초·중·고등학생 ② 대학생 ③ 직장인 ④ 자영업자
⑤ 전업주부 ⑥ 은퇴자 ⑦ 구직 중 ⑧ 기타

SQ6. 귀하의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II. 독서생활 및 독서문화 인식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종이책 또는 전자책(오디오북)을 1권 이상 읽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께서 최근 1년 동안 이용하거나 경험한 독서 관련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종이책 읽기 ② 전자책 읽기 ③ 오디오북 듣기
④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⑤ 신문·잡지·웹진 읽기 ⑥ 독서공동체 활동(독서모임동아리)
⑦ 작가와의 만남(인문학교양 강연) 참여 ⑧ 독서축제·독서문화 행사 참여 ⑨ 글쓰기 등 창작표현 활동 참여
⑩ 해당 없음 ⑪ 기타()

3 귀하의 책 읽기 또는 독서문화 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일·학업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② 스마트폰·영상·게임 등 다른 매체 이용이 많아서
③ 책 읽는 습관이 부족해서	④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⑤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부족해서	⑥ 책 구입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책을 빌리거나 구할 수 있는 도서관·서점 등이 멀어서	⑧ 참여하고 싶은 독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⑨ 독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⑩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⑪ 몸이 불편(시력 등)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⑫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⑬ 기타 ()	

4 귀하는 김해시의 독서문화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9 김해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도서자료의 다양성	⑤	④	③	②	①
2. 최신자료 확보 수준	⑤	④	③	②	①
3. 시설 및 공간 환경	⑤	④	③	②	①
4. 접근성(거리, 위치)	⑤	④	③	②	①
5. 운영시간의 편리성	⑤	④	③	②	①
6. 직원 친절도	⑤	④	③	②	①
7.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질	⑤	④	③	②	①
8. 디지털 서비스(전자책, 온라인 정보 등)	⑤	④	③	②	①
9. 아동·청소년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10. 전반적 만족도	⑤	④	③	②	①

IV. 김해시 독서문화 사업 인지도 및 참여 경험

10 귀하는 「책 읽는 도시 김해」라는 표현 또는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여러 번 들어봤다 ② 한두 번 들어본 적 있다 ③ 들어본 적 없다

11 최근 1년 동안 김해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1-1 ~ 11-2 응답) ② 없다 (→ 12 문항으로 이동)

11-1 참여한 프로그램 또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김해시 올해의 책 ☐ ② 김해독서대전
☐ ③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 ④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 ⑤ 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 ☐ ⑥ 기타 ()

11-2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3 김해시 독서문화 사업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로 접하고 싶으십니까?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김해시청 누리집	② 도서관 누리집
③ 문자·카카오톡 알림	④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⑤ 지역 커뮤니티·맘카페	⑥ 학교·직장·기관 안내
⑦ 도서관 현장 홍보물	⑧ 아파트·게시판·마을 게시판
⑨ 지역 언론	⑩ 기타 ()

14 김해시 독서문화 정책에서 가장 강화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영유아	② 초등학생	③ 청소년	
④ 청년	⑤ 직장인	⑥ 중장년층	
⑦ 노년층	⑧ 장애인	⑨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	
⑩ 독서에 관심이 적은 비독자층	⑪ 가족 단위 시민	⑫ 기타()	

15 김해시 독서문화 정책에서 가장 강화되어야 할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공공도서관	② 작은도서관
③ 학교도서관	④ 지역서점
⑤ 공원·광장 등 야외공간	⑤ 문화시설
⑦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권 공공시설	⑧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⑨ 온라인 플랫폼	⑩ 기타 ()

16 향후 참여하고 싶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작가인문학 강연, 교양 강좌 등 독서 프로그램	② 독서공동체 활동(독서모임·독서동아리)	
③ 글쓰기 등 창작·표현 활동	④ 독서축제·독서문화 행사	
⑤ 디지털 문해력 및 AI 활용 프로그램	⑥ 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	
⑦ 부모교육 및 자녀 독서지도 프로그램	⑧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 프로그램	
⑨ 청년·성인·직장인 대상 독서 프로그램	⑩ 시니어 대상 독서 프로그램	
⑪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⑫ 마을건강·치유 독서 프로그램	
⑬ 기타 ()		

17 김해시 독서문화 정책에서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 기반 강화	②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③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④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18 김해시 독서문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독서공간 확대	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
③ 홍보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	④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
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강화	⑥ 학교·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⑦ 지역서점·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 강화	⑧ 독서취약계층 지원 확대
⑨ 정책성과 평가와 지속적 개선	⑩ 예산 확대
	⑪ 기타 ()

VI. 종합 의견

19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20 김해시 도서관이나 독서문화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NO

김해시 독서문화 및 도서관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책 읽는 도시 김해 독서문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김해시 독서문화·도서관정책의 향후 추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정책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재)김해연구원 연구기획실(055-344-7730)

☐ 수행기관: 다온이앤일

※ 본 설문은해시 독서문화·도서관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정책영역 또는 정책항목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고 설문 문항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각 문항에서 왼쪽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왼쪽 숫자, 오른쪽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오른쪽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두 항목의 중요도가 같다고 판단되면 가운데 ① 동등에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 극히 중요								동 등	극히 중요 →								평가항목
	⑧	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독서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강화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 김해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김해시 도서관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계층구조

계층1 (정책영역)	계층2 (정책항목)
A.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 기반 강화	A1.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A2. 독서동아리 및 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A3. 생애주기별·대상별 새로운 책문화 콘텐츠 개발
	A4. 김해독서대전·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대표 독서행사 고도화
B.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B1. 도서·비도서 등 다양한 정보자원 확충
	B2.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 도서관 서비스 확대
	B3.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B4. 독서취약계층 및 비독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
C.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C1.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C2. 스마트·야외도서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C3.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C4.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생활권 독서활동 지원
D.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D1. 도서관·독서정책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
	D2. 민관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D3.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D4.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 모든 문항은 현재 사업의 규모나 인지도보다 향후 김해시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어느 정책이 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Q1. [정책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김해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다음 정책영역 중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평가항목	← 극히 중요									중 등	극히 중요 →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①		2	3	4	5	6	7	8	9		
A.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 기반 강화																		B.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A.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 기반 강화																		C.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A.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참여 기반 강화																		D.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B.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C.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B.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D.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C.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D.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Q2.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강화 항목간 중요도]

'시민 독서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 다음 정책항목 중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평가항목	← 극히 중요									중 등	극히 중요 →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A1.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A2. 독서동아리 및 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A1.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A3. 생애주기별대상별 새로운 책문화 콘텐츠 개발		
A1.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 고도화																		A4.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잡지 전국대회 등 대표 독서행사 고도화		
A2. 독서동아리 및 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A3. 생애주기별대상별 새로운 책문화 콘텐츠 개발		
A2. 독서동아리 및 시민 독서활동 활성화																		A4.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잡지 전국대회 등 대표 독서행사 고도화		
A3. 생애주기별대상별 새로운 책문화 콘텐츠 개발																		A4. 김해독서대전 청소년 인문학잡지 전국대회 등 대표 독서행사 고도화		

Q3.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 항목 간 중요도]

‘도서관 서비스 및 공간 혁신’을 위해 다음 정책항목 중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평가항목	← 극히 중요									동 등	극히 중요 →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1. 도서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자원 확충																			B2. 디지털스마트기술기반 도서관 서비스 확대	
B1. 도서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자원 확충																			B3.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B1. 도서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자원 확충																			B4. 독서취약계층 및 비독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	
B2. 디지털스마트기술기반 도서관 서비스 확대																			B3.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B2. 디지털스마트기술기반 도서관 서비스 확대																			B4. 독서취약계층 및 비독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	
B3. 이용자 중심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B4. 독서취약계층 및 비독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	

Q4.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항목 간 중요도]

‘생활권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음 정책항목 중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평가항목	← 극히 중요									동 등	극히 중요 →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1.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C2. 스마트아이스터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C1.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C3.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C1. 공공도서관 생활권 서비스망 강화																			C4.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생활권 독서활동 지원	
C2. 스마트아이스터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C3.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C2. 스마트아이스터관 등 생활 속 독서접점 확대																			C4.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생활권 독서활동 지원	
C3.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C4. 지역서점문화공간 연계 생활권 독서활동 지원	

Q5.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항목 간 중요도]

‘정책 추진체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다음 정책항목 중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평가항목	← 극히 중요								통 통	극히 중요 →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D1. 도서관 독서정책 전달 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																		D2. 민관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D1. 도서관 독서정책 전달 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																		D3.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D1. 도서관 독서정책 전달 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																		D4.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D2. 민관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D3.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D2. 민관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 구축																		D4.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D3. 성과평가-통계 기반 정책관리체계 구축																		D4. 책읽는도시 브랜드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 응답자 일반사항

Q6.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 ① 공공도서관 ② 작은도서관 ③ 학교도서관 ④ 대학·연구기관
⑤ 행정기관 ⑥ 지역서점·출판 ⑦ 독서문화단체 ⑧ 기타

Q7. 귀하의 직위 또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② 실무자 ③ 연구자·전문가 ④ 활동가 ⑤ 기타

Q8. 독서문화·도서관정책 관련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6~9년 ④ 10~15년 ⑤ 15~20년 ⑥ 20년 이상

Q9. 김해시 독서문화·도서관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Q10. 귀하의 주요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도서관 운영 ② 독서문화 프로그램 ③ 독서교육 ④ 지역서점·출판
⑤ 문화정책 ⑥ 행정·거버넌스 ⑦ 조사·평가 ⑧ 기타

Q11. 김해시 독서문화·도서관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책 읽는 도시 김해」 독서문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발 행 2026년 8월 24일
발 행 인 김 재 원
발 행 처 김 해 연 구 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
ISBN : 979-11-997022-9-5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